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李晟鳳 · 沈相烈 · 王重植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국제적 발전과 능동적인 대외경제외교의 추구를 뒷받침할 政策研究 수행을 목적으로 1990년 1월 17일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발족하였으며, 1992년 1월 地域研究를 주요업무로 추가하였습니다.

본 연구원은 현재 30~40명의 박사급 연구진을 포함하여 70여명의 연구원이 국제거시금융, 무역투자정책, 대외경제관계 및 APEC 발전대책, 새로운 시장지역여건, 동북아시아협력 및 통일관련 국제협력 등에 걸쳐 다각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본원은 國際巨視金融室, 貿易投資政策室, 세계지역연구센터 (東北亞팀, 東西南亞팀, 美洲팀, 유럽팀), APEC 연구컨소시엄 사무국, 東北亞연구개발센터 사무국을 두고 있으며, 北京事務所와 워싱턴 소재 한국경제연구소(KEI)를 두고 있습니다. 아울러 디지털통상팀과 FTA연구팀, 통일국제협력팀 등 시의적절한 정책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원의 연구결과는 다양한 형태로 정부의 유관부처에 제공되며, 장·단기 研究報告書, 『KIEP주간세계경제분석』, 월간 『KIEP세계경제』,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등의 형태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연구원의 새로운 발간물을 비롯한 각종 연구성과는 본 연구원 KIEP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iep.go.kr>)를 통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국제경제질서의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무대에서의 위상을 강화해나가기 위한 대외경제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국내정책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관심있는 분들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院長 李 景 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137-747 서울시 서초구 압곡동 300-4

TEL : (02) 3460-1001, 1114 / FAX : (02) 3460-1122, 1199

URL: <http://www.kiep.go.kr>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정책자료 01-05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李晟鳳 · 沈相烈 · 王重植

KIEP 對外經濟政策研究院



서 문

인터넷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면서 국제교역, 즉 무역의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역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업자와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대면접촉(face-to-face)과 신용장을 매개로 거래가 형성되고, 거래의 이행을 위해서 은행, 세관, 선사, 보험사 등 유관기관에서 많은 서류가 작성되고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역거래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무역업무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방식의 무역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무역방식을 전자무역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자무역을 21세기 국제무역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각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새로운 무역방식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은 무역정책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결과의 가장 큰 시사점은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정부보다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원자적인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집필은 본원의 이성봉 박사와 광운대학교 심상렬 교수 그리고 Valtech 컨설팅의 왕중식 차장에 의해서 공동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집행에 본 연구의 결과가 크게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2001년 12월

院長 李景台

국문요약

컴퓨터 및 각종 통신기기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면서 국제교역, 즉 무역의 방식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통적인 무역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업자와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대면접촉(face-to-face)과 신용장을 매개로 거래가 형성되고, 거래의 이행을 위해서는 은행, 세관, 선사, 보험사 등 유관기관에서 많은 서류가 작성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역거래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무역업무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방식의 무역이 등장하고 있다.

이 새로운 무역방식을 전자무역이라고 부르고 있다. 무역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이미 무역자동화라는 개념 하에 국내·외에서 추진되어 왔었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무역자동화 개념은 전자무역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처럼 전자무역을 21세기 국제무역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각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새로운 무역방식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은 무역정책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의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몇 가지 각도에서 전자무역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고찰했다. 즉, 거래절차에 따른 전자무역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전자무역과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으로 나누어 국내 동향을 살펴보고, 전자무역의 사업형태를 기준으로 무역거래알선사

이트와 국제 e-마켓플레이스의 현황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미국의 공공 무역거래알선사이트 분석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촉진정책도 검토하였고,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레이드카드 및 볼레로시스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전자무역 관련 국내외 최근동향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주제별로 전자무역의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본 연구결과의 가장 큰 시사점은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정부보다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원자적인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무역거래알선 등 비정형화된 전자무역과 e-마켓플레이스 활성화 등 역동성이 큰 전자무역 분야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보다 관련된 전문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관점에서 전자무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의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중복투자과 관련, 정부는 이들 사이트들의 기능적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및 관련 기관간 협력을 유도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 무역거래알선사이트들은 한국의 전자무역을 위한 통로(gateway)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특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자무역관련 서비스 활동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민간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전자무역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이 인프라의 구축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활동을 전개하더라도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ADSL'과 같은 통신망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 전자무역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처지이다. 그리고 통관, 항만, 결제 등 정형화된 전자무역

분야는 대부분 정부의 각종 행정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및 연계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의 'TradeNet Plus' 등을 벤치마킹하여 통관, 항만, 물류, 결제 등 무역의 각 분야별 정보시스템들을 단절 없이 연결하고, 외부의 인터넷과도 연계시키는 통합적 전자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어느 나라의 전자무역시스템이 그 국가의 무역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무역관련 시스템 통합을 위한 범부처 차원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하겠다.



차 례

서문 5

국문요약 7

제1장 서론 17

 1. 연구배경 및 목적 17

 2. 연구방법 및 구성 18

제2장 전자무역의 개념 및 구분 19

 1. 전자무역의 개념 19

 가. 전자무역의 정의 19

 나. 전자무역과 전통무역의 비교 20

 다. 전자무역의 구성요소 23

 2. 전자무역의 구분 26

 가. 거래절차의 정형성에 따른 전자무역의 구분 27

 나. 무역관련 기능에 따른 전자무역의 구분 29

제3장 국내의 전자무역 현황 32

 1. 전자무역의 일반현황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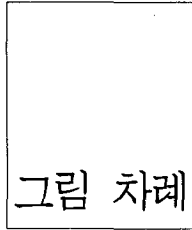
 가. 정형화된 전자무역 현황 32

나.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현황	34
2. 전자무역의 사업형태별 현황	36
가.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현황	36
나.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	44
제4장 해외의 전자무역 사례분석 및 시사점	49
1. 미국의 공공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분석	49
가. ‘TradeNet.gov’	50
나. ‘Usatrade.gov’	52
다. ‘TradeNet.gov’와 ‘Usatrade.gov’의 비교 및 시사점	54
2.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촉진정책	56
가. 무역정보 및 무역거래알선 사이트의 구축	56
나. 전자무역 관련 기업유치 인센티브	59
다. 정형화된 전자무역 시스템의 확대·발전	60
라. 싱가포르 전자무역 촉진정책의 시사점	62
3. 전자무역 전문시스템 분석	64
가. 트레이드카드시스템	64
나. 블레로	69
다. 트레이드카드와 블레로의 비교 및 시사점	71
제5장 한국의 전자무역 활성화방안	74
1.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활성화	76
가. 주요 문제점	76
나. 정책대응방안	78
2. 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효율성 제고	82
가. 주요 문제점	82
나. 정책대응방안	83

3.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대응	84
가. 주요 문제점	84
나. 정책대응방안	85
4.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88
가. 주요 문제점	88
나. 정책대응방안	89
제6장 결론	92
참고문헌	95
Executive Summary	98

표 차례

〈표 2-1〉 전자무역과 전통무역의 비교	22
〈표 2-2〉 전자무역 관련 법령의 규정	25
〈표 2-3〉 전자무역의 구성요소	26
〈표 3-1〉 업무별 무역자동화 추진현황	33
〈표 3-2〉 전자무역의 활용범위	35
〈표 3-3〉 일반적인 무역거래알선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범위	37
〈표 3-4〉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e-마켓플레이스 구축현황	45
〈표 3-5〉 국제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동향	48
〈표 4-1〉 트레이드카드의 장점	68
〈표 4-2〉 볼레로와 트레이드카드의 장단점	72
〈표 6-1〉 전자무역의 발전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	93



〈그림 2-1〉 거래절차의 정형성 수준에 따른 전자무역의 구분	29
〈그림 4-1〉 ‘Tradenet Plus’ 모델	62
〈그림 4-2〉 트레이드카드의 전자무역과정	65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컴퓨터 및 각종 통신기기의 발전과 함께 인터넷이 급속한 속도로 확산되면서 국제교역, 즉 무역의 방식에도 커다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전통적인 무역방식에서는 일반적으로 수출업자와 바이어와의 직접적인 대면접촉(face-to-face)과 신용장을 매개로 거래가 형성되고, 거래의 이행을 위해서 은행, 세관, 선사, 보험사 등 유관기관에서 많은 서류가 작성되고 전달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터넷 확산 및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통해 무역거래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관련된 무역업무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방식의 무역이 등장하고 있다.

이 새로운 무역방식을 사이버무역 또는 전자무역¹⁾이라고 부르고 있다. 무역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은 이미 무역자동화라는 개념하에 국내·외에서 추진되어 왔다. 인터넷 및 전자상거래의 확산과 관련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기존의 무역자동화 개념은 전자무역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처럼 전자무역을 21세기 국제무역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각국의 주요 정책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무역의존도가 높다는 점에서 새로운 무역방식에 신속하게 적응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은 무역정책의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전자무역을 활용하여 수출을 촉진하고, 무역관련 부대비용을 절감

1) 현재 전자무역이란 개념과 사이버무역이라는 개념은 혼용되고 있으나, 정부가 전자무역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이라는 용어만을 사용한다.

하는 등 전자무역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경쟁력 제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등장하는 전자무역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및 구성

본 연구는 기존 연구자료 및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조사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국내 전자무역 관련 동향과 해외 전자무역 관련 사례에 대한 조사는 주로 인터넷을 통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국내외 관련 업계 종사자 및 전자무역 관련 공공기관 관계자와의 인터뷰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전자무역의 개념과 특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이어서 전자무역의 개념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및 해외 전자무역 관련 주요 동향을 파악한다. 국내 전자무역 동향은 일반적인 동향과 사업형태별 동향으로 구분해서 살펴본다. 해외사례분석에서는 전자무역과 관련된 전문시스템의 발전동향과 함께, 싱가포르와 미국의 전자무역 관련 지원정책의 사례를 분석한다. 싱가포르와 미국을 사례분석 대상국가로 선택한 것은 이 두 국가가 전자무역 관련 정책의 계획과 실행에서 매우 상이한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과 싱가포르는 모두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경영환경을 제공하는 국가이지만, 그 접근방식은 미국의 경우 자유방임형이며, 싱가포르의 경우 철저하게 계획형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따라서 이 두 나라의 전자무역 지원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많은 시사점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국내 동향 및 해외사례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 나라 전자무역의 활성화의 주요 장애요인과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 전자무역의 개념 및 구분

1. 전자무역의 개념

가. 전자무역의 정의

전자무역의 개념은 아직 확고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다. 전자무역 개념이 확고하게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전자무역이란 개념이 기술발전에 따라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보다 더 발전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하고, 이 기술을 활용하여 무역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본적인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는 새로운 무역방식을 일단 전자무역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전자무역에 대한 정의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언급될 수 용어가 아마도 ‘무역자동화’일 것이다. 무역자동화는 전자무역의 시초라고 할 수 있다. 즉, 표준화된 상거래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전자문서로 만들어 컴퓨터 및 통신을 매개로 상호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는 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²⁾를 무역관련 서류에 적용한 것이 무역자동화이다.

무역자동화는 국내에서도 이미 1991년 ‘무역자동화 업무추진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해서 그 동안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왔었다. 이러한 무역자동화는 무역과 관련된 문서를 자동으로 작성하고 전달하는 등 무역절차를

2) EDI(Electronic Data Interchange)란 표준화된 상거래서식 또는 공공서식을 서로 합의된 표준에 따라 전자문서를 만들어 컴퓨터 및 통신을 매개로 상호 교환하는 것이다.

효율화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한다는 차원에서 새로운 무역방식이라기보다는 기존 무역방식의 효율적인 수행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인터넷의 등장과 함께 인터넷을 통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가 출현하면서 새로운 개념이 필요해졌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인터넷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가장 크게 받았던 국제무역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져다 주었다. 우선 무역거래를 위한 정보수집 및 마케팅, 그리고 구체적인 거래조건의 협상을 위한 의사교환 등의 활동이 인터넷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폐쇄적인 EDI에 기반을 둔 기존의 무역자동화 시스템과 개방적인 인터넷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인 XML(eXtensible Markup Language)³⁾이 개발되면서 무역자동화보다 보다 포괄적인 새로운 개념이 필요해졌다. 즉, 무역거래 성사 이전의 각종 마케팅 활동과 거래조건 협상뿐만 아니라 무역거래 성사 이후 각종 무역 관련 서류의 전자적인 처리를 위한 무역 EDI의 활용이 모두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무역에 대비되는 새로운 개념의 무역, 즉 전자무역이란 개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전자무역이란 “무역의 모든 절차를 인터넷, EDI 등 각종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무역관련 직·간접 업무를 신속하고, 정확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나. 전자무역과 전통무역의 비교

전자무역은 전통적 무역방식과 비교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별적이다. 전자무역은 기본적으로 전자상거래이기 때문에 전자무역과 전통적 무

3) XML은 웹상에서 구조화된 문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설계된 표준화된 데이터 형식으로 다른 언어를 수용하는 메타언어이다.

역방식과의 차이는 전자상거래와 전통적 상거래의 차이를 상당 부분 그대로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자상거래의 특징인 거래주체간 접촉 방식의 변화, 거래관련 서류 및 대금결제의 전자화, 고객범위의 확대 및 마케팅 개념의 변화 등도 전자무역의 특징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 무역과 전자무역의 차이를 거래채널, 거래대상지역, 거래시간, 마케팅 활동, 거래협상을 위한 의사교환, 무역서류작업, 무역대금결제 및 무역물류 등 무역의 주요 절차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거래채널의 경우 전통적 무역에서는 무역업자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전자무역에서는 인터넷 및 새로운 정보통신기술 환경에 익숙한 새로운 수출입 에이전트가 개입하거나, 수출기업과 수입기업 또는 기업과 소비자가 바로 직접 거래를 하는 형태가 많아지게 되었다. 거래대상지역도 과거 한 기업이 상대할 수 있는 지역이 인력 및 정보의 제한 등으로 인해서 일부지역에 한정돼 있었으나, 전자무역 방식에서는 인터넷의 활용을 통해서 전세계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게 되었다. 거래시간도 전자무역 방식에서는 24시간 가능하지만 기존 방식의 경우 영업시간이 하나의 큰 제약요인이었다.

국경간 거래처의 발굴과 거래처의 요구사항 파악 및 대응, 거래 협의를 위한 의사교환 등의 마케팅활동에 있어서도 전자무역은 기존 무역방식에 비해서 효율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전자무역은 보다 강화된 고객관계관리(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를 통하여 마케팅채널의 확보와 기존 고객의 수요창출, 표적고객에게 적합한 마케팅활동 등을 가능하게 해준다. 즉, 고객의 요구변화를 보다 신속하게 반영하여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전자무역을 통해서도 쌍방향 1대 1 상호마케팅(interactive marketing)이 가능하지만, 전통적 무역방식의 경우 수출입자 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마케팅 활동이 주를 이루기 때문이다.

계약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도 전자무역의 경우 웹사이트 및 전자메일을 통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의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반면, 전통적 방식의 경우 팩스, 전화 및 서신 등을 통해서 의사교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신속성도 떨어진다. 특히 최근의 인터넷을 통한 화상대화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직접적인 대면 없이 협상 및 거래체결이 이루어지게 되어 전자무역의 효율성을 더욱 증진시키고 있다.

무역관련 서류작업에서도 전통적 무역방식에서는 수작업 또는 폐쇄적 EDI를 통한 작업으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제한적 자동화가 활용되지만, 전자무역의 경우 웹과 EDI의 통합을 통한 포괄적 전자화를 통한 효율

〈표 2-1〉 전자무역과 전통무역의 비교

구 분	전자무역	전통무역
거래채널	기업 → 수출에이전트 → 기업 기업 ↔ 기업 기업 ↔ 소비자	기업→무역업자→기업
거래대상지역	전세계	일부지역
거래시간	24시간	제약된 영업시간
고객 수요 관련 정보	온라인으로 수시 획득으로 재입력이 필요없는 디지털 데이터	영업사원이 획득한 정보로 재입력 필요
마케팅 활동	쌍방향 1대 1 상호마케팅	구매자의 의사에 상관없는 일방적 마케팅
고객 대응	고객욕구를 신속히 포착 즉시 대응	고객욕구의 포착이 어렵고 대응 지연
의사교환	웹사이트, 이메일, 대화방등을 통한 저렴하면서도 신속한 의사교환	전화, 팩스, 대면접촉을 통한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느린 의사교환
무역서류작업	웹과 EDI의 통합을 통한 포괄적 전자화 가능	수작업 또는 폐쇄적 EDI를 통한 상대적으로 비효율적인 제한적 자동화
무역대금결제	신용장 개설없이 대금결제 가능	신용장개설 필요
무역물류	효과적 물류 및 화물추적 활용 등 포괄적 전자화	운송주체별 개별확인 등 제한적 전자화

성 제고가 기대된다. 무역대금 결제방식에서도 전통적 방식에서는 신용장의 개설이 반드시 필요했지만, 전자무역에서는 신용장의 개설이 필요 없는 시스템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다양한 결제방식을 통한 비용절감이 기대된다. 물류 측면에서도 기존 무역방식에서 적용되던 물류자동화 시스템의 효과성을 더욱 제고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통합적 물류 시스템이 전자무역의 개념적 틀 속에서 개발되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전자무역과 전통무역을 비교하여 요약하면 <표 2-1>과 같다.

다. 전자무역의 구성요소

기존의 무역방식과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전자무역을 가능하게 한 많은 요소들이 있다. 이를 전자무역의 구성요소라고 할 수 있는데, 크게 제도적 요소, 기술적 요소 그리고 상업적 요소 등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도적 요소는 전자무역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기반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전자무역거래가 기존의 서류를 매개로 한 무역거래와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도록 법적 기반이 조성되어야 전자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전자무역과 관련해서 현재 국내 법률적 기반으로는 「대외무역법」, 「무역자동화법」, 「무역거래기반조성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등을 들 수 있다(<표 2-2> 참조). 이러한 법률적 기반을 토대로 전자무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각종 제도적 기반의 조성도 진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역자동화지정사업자, 전자무역중개기관, 공인인증마크제도, 전자결제제도 등이 전자무역을 구성하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적 요소는 다량의 전자적 무역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의 구비를 통한 기술적 차원의 기반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전자문서, 전자카탈로그 및 전자결제 등에서의

표준화 작업이 여기에 해당하며, 다양한 전자적 무역거래를 위한 각종 솔루션과 서비스의 개발 및 초고속정보통신망 등이 기술적 기반에 해당된다. 기술적 기반은 전자무역을 추진하는 기업의 내부적 기술기반인 ERP⁴⁾, KMS⁵⁾ 등과 EDI, 인터넷, CALS⁶⁾, SCM⁷⁾ 등의 기업외부의 기술적 기반으

- 4)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기업의 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으로 과거 생산관리시스템인 MRP(Material Requirement Program:자재 소요량계획)의 확장된 영역이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분산처리 및 전산 기술의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되고 있으며 생산 및 생산관리 업무를 포함하여 재무, 회계, 영업, 인사 등의 순수관리 부분과 경영지원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
- 5) KMS(Knowledge Management System)은 조직 내에 다양하고 이질적인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지적 자본 및 경험을 획득하고 이를 분류 및 체계화하여 지식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저장하며, 모든 조직 구성원이 보유한 지식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 6) CALS(Commerce At the Light Speed) 설계부터 개발·구매 생산 판매 및 물류에 이르기까지 기업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표준에 맞춰 디지털화 한 뒤 기업 내는 물론 기업간, 나아가 국제간에 공유하는 기업정보화시스템이다.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각종 도면의 중복제작이나 전달과정의 왜곡 등에서 비롯되는 비효율을 줄일수 있는 시스템으로 통한다. 최근에는 「광속의 상거래」라는 의미로 쓰인다. 당초 미국에서 복잡한 군수지원체제를 정보기술을 이용,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사용으로 개발했다. 미국의 CALS산업진흥회에 가입한 기업들은 이체계를 도입, 생산공정을 6주에서 2시간으로, 설계도면수를 평균 2백 개에서 3개로 줄이는 효과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http://kr.biz.yahoo.com/reference/eglossary/159/15997.html?p=CALS>).
- 7) SCM(Supply Chain Management)은 공급사슬을 시장상황에 맞도록 최적화해 경영 효율성을 높이는 활동으로 흔히 공급망 관리로 통한다. 불확실성이 큰 시장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새로운 경영기법이다. 즉 시장 상황이 과거 예측가능한 대량생산시대에서 지금은 예측 불가능한 다품종 소량생산 시대로 변화하면서 등장한 경영 신조류이다. 시장 예측이 어렵다면 시장변화에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 이때 기업의 공급사슬을 최적화하는 작업을 통해 경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법이라는 점에서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뜻하는 스피드 경영과는 차별화된다(<http://kr.biz.yahoo.com/reference /eglossary /89/8942.html?p=scm>).

〈표 2-2〉 전자무역 관련 법령의 규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거래의 법적 효력 부여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의 효력(5조) - 전자서명의 효력(6조) - 개인정보 보호(13조) - 사이버몰 운영자의 의무(15조) - 공인인증기관 지정(16조) - 전자거래촉진시책의 수립·시행(19조) - 한국전자거래진흥원(22조) - 전자거래에 관한 국제협력(25조) - 소비자 보호(29조)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의 안전과 신뢰확보를 위한 전자서명의 기본 사항 규정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서명의 효력(3조) - 공인인증기관 지정(4조) -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업무준칙(6조) - 인증서의 효력(16조) - 인증관리체계의 안전 확보(19조) - 개인정보 보호(24조) - 외국정부와의 상호 인정(27조)
<p>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p>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문서를 통한 무역업무의 처리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자동화 지정사업자 제도(5조) - 무역자동화망의 이용(10조) - 전자문서 표준화계획(11조) - 전자문서의 효력(13조) - 전자서명의 효력(14조) -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보완(18조) - 전자문서 및 무역정보의 공개(19조) 	<p>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p> <p>(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거래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 <p>(주요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거래기반 조성계획수립(3조) - 전자무역거래기반의 확충(6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무역전시회 개최 · 중소기업 지원 · 전산관리체계의 개발 - 무역정보의 유통촉진(7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정보의 수집·가공·분석 · 무역정보망 구축·운영 - 국제협력의 촉진(9조) - 무역거래기반조성위원회 구성(13조)

자료: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인터넷연감 2000', 전자신문사, 2000. 7. 25

로 구분될 수도 있다.

상업적 요소는 전자무역의 구성요소 중 가장 핵심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상업성이 없는 전자무역은 결코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자무역의 상업적 요소란 전자적으로 무역관련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상업적 기반의 구축을 의미한다. 전자무역의 상업적 요소에는 대상 상품과 콘텐츠, 관련 물류 및 결제, 전자무역 전문인력 및 참여기관 등이 해당된다. 전자무역의 구성요소를 정리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전자무역의 구성요소

구분	주요내용
제도적 요소	- 전자적 거래에 대한 법적, 제도적 차원의 기반 구축 - 대외무역법, 무역자동화법, 무역거래기반조성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 무역자동화지정사업자, 전자무역중개기관, 공인인증마크, 전자결제제도 등
기술적 요소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통신망 등 기술적 차원의 기반 구축 - 표준화(전자문서, 전자카탈로그, 전자결제 등), 솔루션/서비스, 초고속통신망 - ERP, KMS, EDI, 인터넷, CALS, SCM 등
상업적 요소	- 전자적으로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는 상업적 기반 구축 - 상품/콘텐츠, 물류, 결제, 전문인력(어학, 실무, 정보화능력 등), 참여기관 등 - 각종 거래알선사이트, e-마켓플레이스, 사이버무역사

2. 전자무역의 구분

전자무역의 구체적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세분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기준, 즉 거래절차의 정형성과 사업 형태라는 기준으로 세분하였다.

가. 거래절차의 정형성에 따른 전자무역의 구분

전자무역업의 형태를 식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은 거래단계별로 활성화되거나 가능성이 높은 업을 분류하는 것이다. 린데만과 런지 (Lindermann & Runge, 1997)는 시장참가자들 사이의 상호작용과정을 기준으로 시장거래의 단계를 정보, 계약, 그리고 이행 단계로 구분하였다. 정보단계 (information phase)는 잠재적 거래당사자간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계약단계 (agreement phase)는 거래당사자간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 조건을 협상하는 단계이다. 이행단계 (settlement phase)는 계약에 합의된 사항을 실행하는 단계로서 교환된 재화와 서비스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하부기능을 갖게 된다. 물리적 상품인 경우는 포장, 운송, 보관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 단계는 물류나 금융서비스 같은 2차 시장거래 (secondary market transaction)를 창출하게 된다.

린데만과 런지의 이론을 바탕으로 전자무역이 이루어지는 절차를 크게 3단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단계는 무역거래 대상제품에 대한 광고 및 거래상대방에 대한 탐색과정이다. 이 단계에서 수출업자는 수출품을 해외 바이어에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홍보하게 되며, 적극적으로 잠재적 수입자를 파악하기 위한 각종 정보를 수집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잠재적 거래 상대방을 확인하게 된다.

두번째 단계는 거래관련 의사교환 과정이다. 거래대상품목의 자세한 내용, 가격, 대금지급방법, 운송방법, 보험 등 각종 거래조건 등에 대해서 거래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협의가 쌍방간 합의로 발전할 경우 세 번째 단계인 이행단계로 연결된다.

세 번째 단계인 이행단계에서는 거래 쌍방간 합의된 각종 거래조건이 법률적 구속성을 갖추고 확정되게 된다.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조건을 실행하는 단계가 시작된다. 계약이행의 핵심은 대금결제와 운송이다. 대금결제와 운송에는 매우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은행,

선박회사 그리고 세관 등이 관여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은행에 신용장을 개설하여 대금결제와 관련된 단계가 먼저 시작되나 전자무역에서는 신용장을 전자적으로 대체하는 방식이 이용된다. 그리고 오프라인 상에서 제품의 선적, 수송, 하역, 검사, 통관 등의 일련의 물류 과정이 온라인상의 등록 및 추적과 동시에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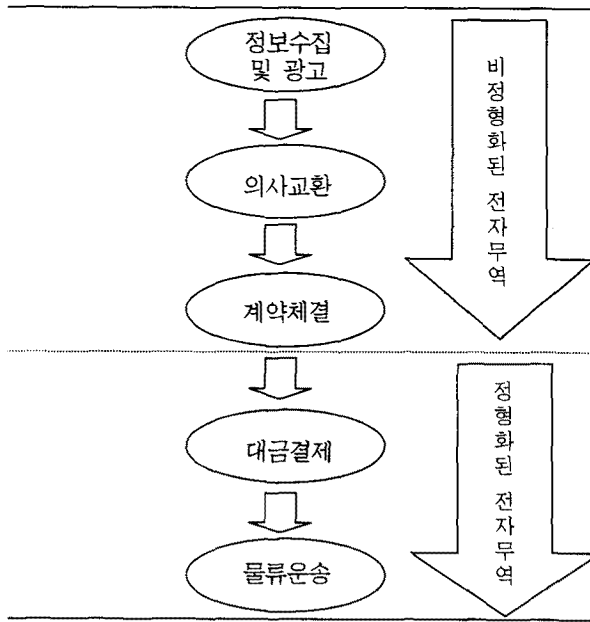
이러한 무역거래절차는 그 정형성의 정도에 따라 크게 정형화된 거래절차와 비정형화된 거래절차로 구분될 수 있다. 여기서 정형성이라 함은 거래관련자들간의 관계가 어떠한 표준적 양식이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정 양식이나 규칙에 따라 거래를 하게 된다면 이는 정형성의 수준이 매우 높음을 의미한다. 거래절차상에서 전자무역의 정형성 정도를 구분하면 계약체결 이전과 이후에 따라 거래의 정형성의 차이가 크다.

계약체결 이전에는 무역거래를 위한 정보수집과 의사교환 등에서 수출입업자간의 특정한 양식이나 규정에 따르지 않고 기업에 적합한 다양한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므로 특정화된 거래형태가 없다. 즉, 무역거래 당사자간에 특정한 표준 없이 주로 인터넷상에서 무역관련 웹사이트 등을 통하여 자유로운 내용과 형식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광고하며, 전자게시판 및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의사를 교환하고 계약을 체결한다. 따라서 계약체결 이전에는 정형성이 낮은 거래가 주를 이루므로 이 과정을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체결 이후는 신용장, 보험계약, 선하증권 등 물류운송 및 세관 등의 과정으로, 주로 EDI를 통하여 특정 표준형식의 데이터를 교환하게 되므로 국가 또는 기업별로 약속된 절차나 방식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지는 높은 수준의 정형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계약체결 이후의 과정은 정형화된 전자무역으로 통칭할 수 있다.

거래절차의 정형성 수준에 따른 전자무역 구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정보통신기술의 활용정도에 있다. 즉, 데이터의 전송과 처리에서 사

〈그림 2-1〉 거래절차의 정형성 수준에 따른 전자무역의 구분



용되는 기술의 차이로서 가령 정형화된 전자무역에서는 EDI나 부가가치 통신망(value added network)과 같은 전용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전송하는 반면에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의 절차는 주로 전자메일이나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정형화된 전자무역에서는 비정형화된 전자무역과는 달리 대부분 구조화된 표준형식의 데이터가 활용되며, 데이터의 관독에서도 특별한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나. 무역관련 기능에 따른 전자무역의 구분

무역과 관련된 주요 기능은 크게 무역거래 매개기능과 무역거래 창출기능으로 구분될 수 있다. 기존의 무역거래 매개기능이 전자무역을 통해서 보다 효율화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형태는 무역거래알

선사이트이다. 실제로 인터넷과 무역이 접목되면서 가장 많이 출현한 사업형태가 바로 무역거래알선사이트들이다. 한편 전자무역을 통해서 새로운 무역거래가 창출되고 있는데, 현재 철강, 화학 등 주요 산업별로 기업간 국제적인 거래가 전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의 구축이다.

1) 무역거래알선사이트

일반적으로 중간상과 같은 매개업의 역할은 집합(aggregate), 신뢰(trust), 촉진(facilitation) 및 매칭(matching)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Bailey & Bakos, 1997). 집합기능은 소비자의 구매요구와 공급자의 판매상품을 모으는 것으로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달성하고, 공급자와 소비자간 교섭력의 불균형을 해소시킨다. 신뢰기능은 정보의 부족 또는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방지하는 것이다. 촉진기능은 공급자와 소비자간에 전달되는 정보의 처리와 전환과정을 조정함으로써 정보교환을 촉진시켜 거래에 따른 처리와 조정 비용을 절감시켜준다. 매칭기능은 다수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직접 연결시켜주는 것이다.

전자무역에서 이러한 매개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주체가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이다. 무역거래알선사이트들은 인터넷 및 기타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공급자 차원에서의 무역업체 및 제조업체들이 제공하는 각종 정보를 취합하고 이를 다시 불특정다수의 수요자측면의 무역업체 및 제조업체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무역거래알선사이트들은 과거 전통적 무역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다양한 정보를 높은 수준으로 통합하는 집합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을 활용한 무역거래에서 가장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거래당사자의 신용 및 거래의 구속성 확보를 위한 신용조사 및 인증과 같은 특정 서비스를 거래자 쌍방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수출입관련 각종 광고를 대행하거나 대금결제, 통관 및 물류 등을 대행, 보조하는 등의 촉진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무역거래알선사이트들은 무역포탈사이트(portal site)를 지향하고 있다. 무역포탈사이트란 기업간 국제거래가 사이버 공간상에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무역업무에 필요한 상품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종합적으로 체계화시킨 네트워크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현재 무역포탈 사이트는 무역정책 동향 및 법규 검색, 해외시장정보 수집, 경쟁업체 동향 파악, 기업 및 제품의 홍보, 오피 등록 및 조회, 새로운 거래선의 발굴, 거래처 및 기업 신용조사, 거래상담 및 협상, 물류·운송 및 보험 정보, 신용장 및 대금결제, 통관 및 관세업무, 고객의견 수렴 및 클레임 접수 등의 업무에 대한 정보적 기능 및 거래알선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2)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

e-마켓플레이스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상에서 불특정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비즈니스 거래를 유발시켜 주는 가상의 시장을 의미하며 주로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위해 구축된 시장을 의미한다. e-마켓플레이스가 각광받는 이유는 기업의 판매망의 확대뿐만 아니라 관련 기업들의 구매·조달의 거래비용을 절감하는 등 효율을 증대할 수 있고, 아울러 가치사슬의 통합에 따른 고객중심의 유연한 경영으로 연결되어 결국 생산효율성의 제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e-마켓플레이스가 국경을 넘어서 구축되면서 전자무역은 무역거래알선수준을 넘어서 새로운 무역거래를 창출하는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 2개국 이상의 동종 또는 유사업종 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해당업종의 국제적인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목표로 한 제 3의 법인을 설립하고 있다. 즉,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라는 새로운 무역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산업별로 시장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국제무역의 형태를 창출하고 있다.

제3장 국내의 전자무역 현황

국내의 전자무역의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힘들다. 그 이유는 우선 전통적 무역과 전자무역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기업이나 정부에서 이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하지도 않기 때문이다. 또한 전자무역의 내용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그 형태도 다양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현황파악이 더욱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과 관련된 직·간접적 자료조사를 토대로 전자무역의 현황을 제2장에서 구분한 전자무역의 유형별로 나누어 파악해 본다. 먼저 정형화된 전자무역과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으로 구분하여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무역거래알선사이트와 e-마켓플레이스의 현황을 파악해 본다.

1. 전자무역의 일반현황

가. 정형화된 전자무역 현황

정형화된 전자무역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약체결 이후의 대금결제 및 물류와 관련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주로 무역 EDI의 이용현황이 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현황을 대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형화된 전자무역은 무역업무자동화가 도입된 1990년 이후와 인터넷을 활용한 전자무역이 시작된 1997년 이후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무역업무자동화는 1991년에 제정된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관한법률」과 수출입통관 고시 등에 따라 무역유관기관과의 수출입절차 자동화로 부터 시작되었다.

국내 무역업체의 EDI 이용 수준은 매년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경우 아직까지는 경제적, 기술적인 부담으로 인해 무역 EDI의 도입이 미진한 상태이다. 특히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통관·물류 분야는 100% 자동화되었으나, 상역·외환분야는 16%에 그치고 있다.⁸⁾

〈표 3-1〉 업무별 무역자동화 추진현황

(단위: 천 건, KTNET 기준)

업무	1998	1999	자동화율	
상역·외환	3,114	3,612	16%	37%
통 관	17,953	20,826	100%	
환 급	3,562	4,132		
화 물	26,907	31,212		

자료: 한국인터넷정보센터&전자신문사, "한국 인터넷 연감", 2000.

이용자별로는 관세사·장치장·포워드 등은 모두 자동화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나, 무역업체는 약 10% 정도(9,000여 업체)의 중대형 업체만 주로 이용하고 있다. 여기에는 전산장비 및 사용자 S/W 구입비용, 원격지 이용의 어려움, 업무관계자의 전산화 마인드 부족 등 여러 요인을 지적할 수 있다.

무역 EDI의 경우 국내 무역업체들은 무역업무자동화 지정사업자인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⁹⁾' 시스템을 통하여 선사, 보험사, 은행, 세관, 무역협회 등 무역유관기관과 정형화된 무역절차에 따른 무역관련 서류를 송

8) 한국인터넷정보센터&전자신문사, "한국 인터넷 연감", 2000.

9) KTNET은 1991년 무역절차의 온라인 처리를 목적으로 무역협회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1991년 산업자원부의 무역업무 자동화 전담사업자 지정과 1992년 관세청의 통관자동화시스템 운영을 위한 기본 협정 체결을 토대로 신용장업무에서 수출입신고, 관세환급, 보세운송, 보세화물관리에 이르는 무역업무 처리절차를 EDI 및 인터넷으로 서비스 하고 있다.

수신하고 있다. 전자결제, 전자자금이체, 외환결제 등과 관련한 무역결제 시스템의 경우 'KTNET'의 금융망 및 '국제은행간 대금결제통신망(SWIFT)' 등을 통하여 신용장의 개설 및 통지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국내 운송, 항만, 국제 운송 등이 연계된 물류정보시스템의 경우 운임 및 운항 계획 등의 조회 및 선적 신청은 물론, 화물에 대한 정확한 사전 정보의 입수와 보세운송에 대한 사전 신청을 위한 전산화, 'CY(Container Yard)' 및 'CFS(Container Freight Station)' 운영업체와 운송인, 세관간의 자료전달체계의 확립, 화물적재 해소를 위한 기간 산업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국물류정보통신(KL-NET)'¹⁰⁾을 주축으로 구축되어 있다.

향후의 정형화된 전자무역은 기존 EDI의 자체 성장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터넷 EDI의 등장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터넷을 통한 무역절차의 보안 및 인증 등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고, 이용자의 편리성과 경제성이 제고된다면 정형화된 부문에서의 전자무역의 활용이 급격히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나.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현황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은 주로 계약체결 이전 단계와 관련된다. 즉, 인터넷을 활용한 해외홍보와 거래알선,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거래 당사자간의 정보 탐색 및 전자우편에 의한 교섭 등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기업체의 경우 다음의 표에서와 같이 전자무역이라고 하면 주로 해외거래선의 발굴과 시장정보 및 자사제품 홍보 등과 같이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으로 한정하여

10) KL-Net은 물류정보화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가 설립을 주도하고, 물류분야의 선사, 운송회사, 터미널, 포워드, 검정회사 등 민간업체가 주주로 공동참여하여 1991년 설립되었다. 현재 항만운영업무 EDI, 통관업무 EDI 등 정부전자민원서비스를 비롯해 택배업무 EDI, 컨테이너터미널 EDI 등 다양한 물류분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인식하고 있을 만큼 비정형화된 부문의 전자무역이 빠르게 발전·확대되고 있다.

〈표 3-2〉 전자무역의 활용범위

응답항목	응답업체 수	구성비	순위
① 해외시장정보의 수집	433	26.2	2
② 자사제품의 해외홍보/마케팅	393	23.7	3
③ 해외거래선 발굴	441	26.6	1
④ 신용조회	51	3.1	7
⑤ 오퍼 및 거래협상	244	14.7	5
⑥ 거래계약 체결	69	4.2	6
⑦ 대금결제, 통관 및 화물운송	104	18.9	4
전 체	549	100.0	

자료: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중개기관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2000. 11.

국내의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¹¹⁾에서는 조사대상 기업의 45.1%가 인터넷을 통한 무역정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64.8%가 자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운영중이라고 응답하였다.

비정형화된 전자무역부문의 현황을 대변하는 것은 다양한 무역거래알선 사이트의 출현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대표적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실크로드21이 있으며, 민간부문에서는 종합상사 및 전문기업이 구축한 다양한 무역거래알선사이트가 있다. 무역거래알선사이트들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11) 한국무역협회, "전자무역인력 수요조사 결과", 1999.

2. 전자무역의 사업형태별 현황

가.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현황

1) 개요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는 거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형태(third-party exchange)와 수출입업체인 당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제3자에 의해 제공되는 무역거래알선사이트는 다시 수출입업자의 선호에 따른 정보량의 분산정도에 따라 중립적 허브(neutral hub)형 사이트와 편향적 허브(biased hub)형 사이트로 분류할 수 있다.

중립적 허브형 무역거래알선사이트는 거래당사자인 수출입업자 중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방을 모두 대상으로 하는 중립적인 관점에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기관 및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이다. 이들 사이트의 특징은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산업분야에 대한 공급자와 수요자의 정보를 집약시킨다는 데 있다. 일반적인 기업간 무역거래는 수출입업자 모두가 분산되어 흩어져 있으므로 중립적 허브사이트의 가치 및 필요성이 매우 높다.

편향적 허브형의 사이트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정보를 편향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편향적 허브형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는 영향력 있는 수출입업자를 중심으로 구축되기 때문에 특정 목적의 무역거래에서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글로벌 마케팅과 정보공유의 한계 및 객관성 부족으로 인하여 중립적 허브형 사이트보다 그 성장에 한계가 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종합상사와 제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가 있으며, 이들은 주로 특정산업분야를 집중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일반적인 무역거래알선 사이트의 서비스 범위는 주로 정보제공을 촉진시키는데 집중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내외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등을 대

상으로 수출입 시장·제품·기업정보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오피리스트를 등재하여 거래를 촉진한다. 또한 특정기업에 관한 재무 및 금융정보 등 신용정보를 제공하기도 하며, 개별기업들의 홈페이지 작성 및 등재를 통한 기업홍보와 제품에 대한 전자 카탈로그를 활용한 제품홍보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부가적으로 전자메일 계정제공과 실시간 대화방운영 등을 통한 의사교환지원 서비스 및 국가별 여행정보 등을 제공하기도 한다. 이러한 서비스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3-3〉 일반적인 무역거래알선 사이트의 서비스 제공 범위

서비스 형태	내 용
수출입시장·기업·제품정보	국내외 제조업자, 수출입업자 등을 대상으로 수출입 시장·제품·기업정보에 대한 검색 서비스 제공
거래알선정보	오피리스트를 등재하여 거래촉진
기업신용정보	특정기업에 관한 재무 및 금융정보 등 신용정보 제공
기업·제품 홍보	개별기업들의 홈페이지 작성 및 등재를 통한 기업홍보와 제품에 대한 전자 카탈로그를 활용한 제품홍보
부가기능	전자메일 계정제공과 실시간 대화방운영 등을 통한 의사교환지원 서비스 및 국가별 여행정보 등

한편, 최근에 등장하는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서비스 범위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즉, 일부 종합상사나 전문기업의 경우 무역정책 동향 및 법규검색, 해외시장정보 수집, 경쟁업체 동향 파악, 거래처 및 기업 신용조사, 거래상담 및 협상 등 비정형화된 부문의 정보의 양과 질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물류·운송 및 보험 정보, 신용장 및 대금결제, 통관 및 관세업무 지원 등 정형화된 부문까지도 포함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 공공기관 운영 무역거래알선사이트

가) 현황

대표적인 공공기관 운영 무역거래알선사이트로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의 'Silkroad21' 및 경기도, 충청남도 등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들을 들 수 있다. 이들 사이트들은 제3자 중립적 허브형 무역거래알선사이트로서 주로 수출입 오피 리스트, 국내 업체 홈페이지, 디지털 상품 카탈로그 및 국내 수출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수출입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ilkroad21(silkroad21.or.kr)'은 산업자원부의 후원으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구축한 전자무역 국가 기간사이트로서 무역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흩어져 있는 각종 무역거래알선 정보를 통합적으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한편 'Silkroad21'과 연계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사이트(kotra.or.kr)를 통해서 해외시장개척, 무역정보제공, 수출입거래알선 등의 서비스도 제공된다.

지방자치단체의 무역거래알선사이트로는 경기도, 충청남도, 부산시 및 대구시 등의 무역지원사이트가 비교적 우수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kitrade.net)는 무역거래알선, 전자카탈로그, 중소기업 홈페이지, 도내무역업체정보, 중소기업체정보, 무역통계정보, 경기무역뉴스, 무역진흥시책, 수출애로상담, 프론티어 기업목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충청남도(chungnambiz.net)의 무역거래알선사이트는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해 디지털카탈로그, 기업디렉토리, 충남통상정보, 무역뉴스, 종합무역정보, e-메일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산학관협력의 형태로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다.

부산광역시(exportnet.co.kr)의 무역거래알선사이트는 부산광역시와 민간의 합작기업으로 설립되었으며, 인터넷마케팅 및 전자상거래 증진을 목표로 무역실무대행, 바이어 자동발굴로봇, 웹 호스팅, 쇼핑몰 구축, 무역 동

호회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구광역시의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인 대구사이버트레이드센타(tctc.co.kr)는 해외영업망을 갖추지 못한 대구지역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와 (주)대구종합정보센터에서 공동 설립하였으며, 상품정보, 기업디렉토리, 온라인상담, 무료번역, 통역자원봉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나) 평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경우 현재까지는 거래정보를 교환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이트 운영의 실효성을 평가하는 것이 어렵다. 또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공공기관 운영에 따른 전문성 부족 등 비생산적 요소가 있다. 뒤에서 논의할 민간기업의 무역거래알선사이트와 비교해서도 이들 공공기관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서비스 수준이 낮다. 예를 들어 이용자들의 전자메일을 통해 고객이 원하는 맞춤정보를 제공해주는 전자메일 통보(alerts)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이들 공공기관 무역알선사이트들은 국내외의 홍보 부족으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문제도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국내 민간거래알선사이트는 무료로 회원사의 홈페이지를 제작해 줌으로써 기업이 자사를 홍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기는 하였지만, 그 수준이 낮아 유용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국내의 지방자치단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한 무역포탈사이트들은 걸은 포탈서비스를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 중소기업을 지원할만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3) 종합상사

가) 현황

전자무역은 기존 종합상사의 수익모델인 중개무역이나 무역업무대행 등

의 업무와 경쟁적인 또는 대체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종합상사들에게는 큰 위협요인이 되었다. 이에 종합상사들은 기존 경쟁력을 유지하고 전자무역에서의 선점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무역거래알선사이트를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의 'findkorea.com', 씨제이코퍼레이션의 'dreammart.com', LG상사의 'lgicorp.com', 대우의 'tradewindow.co.kr' 등의 사이트를 들 수 있다.

삼성물산의 무역거래알선 사이트인 'findkorea.com'은 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터넷 무역거래 알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을 하나의 전시장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회원사가 상품을 전시하고 바이어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 이 사이트는 미국 AOL, 야후, 아이몰 등 영어권 대형사이트와 차이나닷컴 등 중화권 사이트와 제휴하여 한국 상품을 소개하고, 성사된 거래에 대해서는 저렴한 비용으로 무역대행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다. 또한 차별화된 전문수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findkorea.co.kr'도 운영, 무역거래의 수주에서 협상까지 일관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씨제이코퍼레이션의 'dreammart.com'은 전문적인 자료관리시스템(DBMS) 등 무역전문 솔루션을 구축해 놓고, 이 웹 EDI 솔루션을 이용, 무료 EDI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드림마트 이용자는 기존 팩스나 우편으로 행해지던 주문서, 오피사이트 등의 무역문서의 수발신 작업을 사이트상에서 무료로 행할 수 있다. 1998년에 개설한 이래 6개월만에 10만명 이상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데이터 베이스 활용을 통하여 600여건의 수출계약이 체결되기도 했다.

LG상사(lgicorp.com)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바터무역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였다. 전자무역의 어려움인 결제위험과 보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유와 목재, 철강 등 원자재와 석유화학과 가전제품의 현물 교환이 가능한 사이트를 구축한 것이다. 바터 전자무역 사이트는 수출입 및 3국간 무역거래를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글로벌 소싱사이트로 운영되고 있는데, 환리

스크도 회피할 수 있고, 단순교역에 비해 마진율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주)대우가 1999년 5월 개설한 트레이드윈도우(tradewindow.co.kr)는 기존 전자무역 방식에 입찰제를 도입한 경매방식의 전자무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바이어의 주문에 맞춰 생산자로부터 가격을 포함한 입찰제안서를 받아 온라인 경매를 통해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형태로서 전 세계 1백 50만개 기업 및 제품정보를 바탕으로 바이어와 생산업체가 최상의 가격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나) 평가

국내 종합상사가 운영하는 무역거래알선사이트는 공공기관이 무료로 운영하는 사이트와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수익모델 또는 차별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무역거래알선사이트는 주로 정보량과 서비스 수준 및 가입자수에 따라 사업의 직접적인 성패가 달려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대규모 종합상사 또는 오프라인에서 상당한 경쟁우위를 가진 수출입업자의 무역거래알선사이트가 아니면 시장에서 생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즉,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주요 핵심성공요인은 규모와 범위의 경제 실현여부에 있으며, 이를 달성하는 사이트만이 향후 생존과 발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아직까지 국내 종합상사의 수준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가령 국내 종합상사의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는 상품별, 기업별 디렉토리 검색은 모두 가능하나 보다 면밀한 검색을 통해 거래선을 개발하고 새로운 상품을 찾고자 하는 이용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종합상사가 보다 전문적인 무역 포털사이트로 발전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이고 세분화된 서비스 제공 및 광범위한 DB 확보 등 많은 노력과 투자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4) 전문화된 무역거래알선사이트

가) 현황

전문화된 전자무역 거래알선사이트는 주로 제3자형이면서 중립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이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디렉토리 및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은 물론, 웹사이트 상에서 실제 거래가 이루어지고 대금 결제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한국무역협회에서 분사한 'EC21',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분사한 'ECPlaza', 그리고 몇몇 민간전문기업들이 운영하는 무역거래알선사이트가 있다.

'EC21(ec21.net)'은 2000년에 한국무역협회에서 독립법인으로 출범한 이후 거래알선, 주문에서 대금지급까지 무역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하는 등 전문 무역거래알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현재 2만 명의 국내외 회원사를 확보중인 EC21은 특히 '사이트빌더'라는 카탈로그 자동생성기능을 통해 4만 2천여 건의 전자상품카탈로그를 확보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재 하루 6만 여건의 페이지뷰를 기록하는 등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특화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ECPlaza(ecplaza.net)'는 국내 최초로 인터넷을 통한 무역거래알선서비스를 제공한 전문업체로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에서 분사한 이후 그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ECPlaza(ecplaza.net)'가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는 글로벌 B2B-마켓플레이스, 오픈등록검색, 전자카달로그, 기업정보, 신용조사, 수출입대행 및 인터넷 EDI 방식에 의한 무역자동화 서비스 등이다. 최근에는 해외거점 확보에 주력, 미국·일본·중국·아랍에미리트 등에 이미 해외지점망을 확보한 바 있으며, 향후에 칠레·대만·베트남 등지에도 거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티페이지(tpage.co.kr)'는 순수 민간기반에서 시작한 전자무역 전문업체로 1998년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무역 박람회의 개최 및 전세계 무역 관

련업체의 홈페이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공하는 'Tpage(www.tpage.com)'를 운영하고 있다. 140만개의 국내외 기업 DB를 근간으로 거래정보 및 업체·상품 DB에 대한 방대하고 세심한 검색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에 무역솔루션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특히 티페이지는 국제적인 재고·유희상품의 경매를 위한 'B2B익스체인지'라는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는 등 새로운 서비스영역을 개발하고 있다. '엑스포22(expo22.com)'는 모든 등록상품의 이미지를 사이트에 올리는 상품검색 방법을 채택함으로써 사용자 모두가 상품이미지를 볼 수 있도록 했고 회사검색은 구매자 또는 판매자로 분류 검색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2001년 8월 현재 전 세계 100개국 14,94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56,226여 가지 상품 DB를 등록, 세계적 수준의 정보량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나) 평가

제3자형이면서 중립적인 전문적인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인 경우 객관적인 정보와 다양한 산업영역을 다룰 수 있어 공공기관 사이트 또는 종합상사가 운영하는 사이트에 비해서 차별화될 수는 있다. 그러나 이들 전문적인 무역거래알선사이트는 정보네트워크 및 자본면에서 종합상사보다 열세에 있으며, 제공하는 서비스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의 무역거래알선사이트에 비해서 경쟁열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전문 무역거래알선사이트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현재까지 이들 전문 무역거래알선사이트들은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서 상당한 신뢰를 시장에서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

1) e-마켓플레이스의 특징과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의 발전방향

전자무역의 새로운 중심축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 e-마켓플레이스이다. 일반적으로 e-마켓플레이스는 사업영역의 폭과 깊이에 따라 수직적 e-마켓플레이스와 수평적 e-마켓플레이스로 구분할 수 있다. 수직적 e-마켓플레이스는 특정한 한 산업에 초점을 맞춘 시장이다. 자동차, 섬유, 기계, 조선, 첨단 산업 등과 같이 전통적인 산업분류에 따라 각 산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된다. 수직적 e-마켓플레이스의 경우 전형적으로 구매과정을 자동화시켜서 산업에 특화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출발한다.

수평적 시장은 특정한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초점을 맞춘 시장이다. 따라서, 원재료 구매, 물류 대행, 서비스 자산관리, 회계 대행 등과 같이 비즈니스 주체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프로세스 중심으로 시장이 구성된다. e-마켓플레이스의 등장 초기에는 기업 업무의 분화와 전문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수평적 시장의 등장이 두드러졌다. 그러나 기업의 프로세스는 산업별 특성에 따라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므로 하나의 솔루션 구현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최근의 추세는 산업별로 다양한 역할을 가진 시장 참여자들을 수직 통합하는 수직적 시장으로 그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e-마켓플레이스는 참여자의 구성에 따라 다대다(many-to-many) e-마켓플레이스와 일대다(one-to-many) e-마켓플레이스로 구분된다. 다대다 e-마켓플레이스는 시장에 대한 통제력을 어떤 한 기업이 가지지 않고 다수의 공급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베이스의 중립적인 중개시장이다. 반면에 일대다 e-마켓플레이스는 한 구매자와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할 수도 있고, 한 공급자와 다수의 구매자가 참여할 수도 있다. 어떤 쪽이든, 구매자나 공급자 한 쪽에게 시장 지배력이 있는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일대다 e-마켓플레이스의 경우 하나의 구매자(공급자)만으로도 임계치(critical

〈표 3-4〉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적 e-마켓플레이스 구축현황

분 야	참 여 업 체	비 고
자동차	GM, Ford, DaimlerChrysler (르노-닛산 참여)	세계최대 자동차 e-마켓플레이스 추진 (연간 2,400불 규모, 전세계 3만여 업체 연결)
유통	시어스, 카르푸, 오라클	GlobalNetexchange추진 (연간 800억불 규모, 5만 공급업체 참여)
건설	Centex Corp., D.R.Horton, Lennar Corp.	
철강	US Steel, esteel	(65개국, 1,300개회사 참여)
항공	US항공, 아메리칸에어라인, 델타항공, 유 나이티드에어라인, 영국항공, 에어프랑스	(320억파운드의 부품조달)
석유화학	BF 굿리치, 이스트만화학, 수노코화학, 캐 스트롤, 롬 등	석유화학분야 합작회사인 "Enverna"설립 추진
의료	존슨앤존슨, GE산하 메디칼 시스템즈, 백 스터인터내셔널, 매드트로닉 등 5개사	의료분야 공동 마켓플레이스 설립추진 (3/4분기 서비스 개시)
금융	골드만삭스, J.P.모건, 메릴린치, 모건스 텔리던위터 등	"Securities.hub" 설립 추진
석유	다우케미칼, 아모코, 코모코 등 13개사	
농산물	Cargill, DuPont, Cenex Harvest	Rooster.com 설립 추진
소비재	코카콜라 피앤지, 네슬레, 하인즈, 베스트 푸드, 유니레버 등 40개사	소비재 분야 B2B 공동사이트 설립 추진
전력·가스	아메리칸일렉트릭파워, 시너지, 뉴드에너 지, 에디슨 인터내셔널 등 15개사	
소매유통	K마트, 테스코, 마크앤스팬서 킹피셔, 카 지노, 아우칸, 로알 아홀드 등	Worldwide Retail exchange
플라스틱	듀폰, 다우케니칼, BASF, 바이어등	플라스틱 사출성형기 거래
의료건강	아메리소스웰스, 카디널헬스, 피셔사이언 티픽인터내셔널, 맥케슨 HBOC등 5개사	newheal thexchange.com(연간 1억불 규 모)
의료	네오프로마닷컴, 아리바	
반도체 등	스미스&어쏘시에이트	smithmart.com (하이테크 제조업체의 과잉부품제 거래)

자료: 산업자원부(2000).

mass point)가 형성되는 자동차, 항공 등의 거대기업에만 한정적으로 운영 될 것으로 보이며, 주요 e-마켓플레이스는 다대다 e-마켓플레이스가 될 것으로 보인다.

e-마켓플레이스는 그 특징상 국경의 제약이 적으며 다수의 참여자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적 e-마켓플레이스는 향후 전자무역의 핵심축을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별로 구성되는 수직적 e-마켓플레이스와 다수의 공급자와 구매자가 참여하는 다대다 e-마켓플레이스의 특성을 갖고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표 3-4>에서 보듯이 이미 미국 기업들을 중심으로한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들이 이러한 특성을 보이면서 구축되고 있다.

2) 국내기업의 국제적 e-마켓플레이스 구축 및 참여 현황

국내기업들의 e-마켓플레이스의 구축 또는 참여는 최근에 순수 온라인 기업과 종합상사 등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¹²⁾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삼성물산을 비롯한 국내외 30여개 화학업체가 ‘캠크로스’를, 현대종합상사와 SK상사, LG상사 등이 ‘캠라운드’를 각각 출범시켰다. 그리고 철강에서는 삼성물산이 추진하는 ‘트레이드스틸닷컴(tradesteel.com)’과 현대종합상사의 ‘이스틸닷컴(esteel.com)’과의 전략적 제휴 등을 들 수 있다.

‘캠크로스(ChemCross.com)’는 한국과 일본, 대만의 유력 화학업체가 공동으로 설립한 국제 합작 인터넷 무역업체로서 화학분야의 전자상거래 전문 포털사이트인 ‘캠크로스’를 운영하고 있다. 참여업체는 대만 최대의 화학그룹인 포모社, 일본의 미쓰비시가스코퍼레이션(MGC), 한국의 대한유화와 고합 등 10여개 업체이다. ‘캠크로스’는 컨소시엄 형식으로 국내에서

12) 국내 B2B e-마켓플레이스는 그 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산하 협력·하청업체를 대상으로 구축되어 왔었다. 2000년 8월 현재 국내 B2B e-마켓플레이스는 약 170여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산업자원부, 2000).

추진된 최초의 국제적 e-마켓플레이스이다. 참여사는 취급품목에 대한 정보 및 영업노하우를 지원받고 있다. 사이트를 통해 원료수입과 제품판매 등 각종 거래도 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물류 및 금융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캠라운드(ChemRound.com)’는 LG상사와 SK상사가 공동으로 추진한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로 주로 화학제품의 중개알선 및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캠라운드는 한국업체 외에 일본 중국 대만 등 동아시아 지역 화학업체들을 합류시켜 출범했고, 향후 중동 미국 유럽 등으로 참여업체를 확대할 방침이다. 참여업체들은 제품판매 및 원자재 조달 등 기존 상거래 활동을 캠라운드를 통해 하게 되며 참여지분만큼 캠라운드의 거래중개 수수료 수입을 기반으로 한 배당수익을 받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물류와 보험지불인증 등 부가기능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철강의 경우 삼성물산은 ‘트레이드스틸(tradesteel.com)’을 미국의 Cargill社, 스위스의 Duferco社, 룩셈부르크의 TradeARBED社와 공동으로 출범시켰다. 이 포털사이트는 인터넷상에서 철강업체와 수요자간의 전자상거래를 실현시켜주는 것으로 매수, 매도 주문 접수부터 계약체결, 대금결제, 선적, 보험, 운송, 통관 등 무역거래과정을 온라인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종합상사는 미국의 주요 철강회사인 카틸스틸社와 워싱턴스틸社가 공동으로 개설한 철강 포털사이트인 ‘이스틸닷컴(esteel.com)’과 전략적 제휴를 체결하여 국제적인 철강 e-마켓플레이스에 참여하고 있다. 엘지상사의 경우 ‘스틸트레이드엑스(Steeltradex)’에 참여하고 있다. SK상사는 삼보컴퓨터, 두루넷과 함께 홍콩의 ‘isteelasia.com’과 제휴, 국내에서 ‘isteelasiakorea’를 추진하고 있다.

〈표 3-5〉 국제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국내기업의 진출동향

업 종	업체명	관련회사
화 학	ChemCross.com	삼성물산, 옐지칼텍스
	Chemround.com	현대종합상사, 옐지상사, SK
철 강	Tradesteel	삼성물산
	Steelmatal	현대종합상사
	Steeltradex	옐지상사
	isteelasiakorea	SK상사, 삼보컴퓨터, 두루넷, 홍콩 isteelasia.com

제4장 해외의 전자무역 사례분석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전자무역의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국별 사례는 미국과 싱가포르 정부의 전자무역의 지원정책 사례를 분석한다. 미국은 전자상거래의 발원지로 전자무역분야에서도 정부의 역할과 관련한 중요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공공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를 분석한다. 무역분야가 국가경쟁력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전자무역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으며,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는지를 검토한다. 해외사례의 또 하나의 주제는 전자무역과 관련된 전문시스템의 등장에 대한 분석이다. 글로벌 전자무역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트레이드카드’ 시스템과 ‘볼레로’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하고 향후 기대되는 효과를 검토한다.

1. 미국의 공공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분석

미국의 전자무역 촉진정책은 주로 비정형화된 전자무역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정형화된 전자무역 측면의 경우 미국은 세관을 제외하고는 무역의 여러 측면에서 연방정부가 주도할 만한 분야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정형화된 전자무역 측면에서 미국 연방정부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공공 무역거래알선사이트 분석을 통해서 파악해 본다. 본 연구에서는 ‘TradeNet.gov’와 ‘Ustrade.gov’ 사이트를 분석한다.

가. 'TradeNet.gov'

1) 사이트 개요

'TradeNet'은 미국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정부기관혁신위원회(National partnership for Reinventing Government: NPR)의 주도하에 'TradeNet' 개발 테스크포스팀에 의해 만들어진 사이트이다. 이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미국 행정부 기관들이 제공하는 무역관련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들로는 미 상무성(US Department of Commerce)산하의 통상서비스팀(Commercial Service Team)과 무역정보센터, 미 수출입은행, 미 해외개발기구(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의 기술네트워크(Global Technology Network), 미 농무부의 해외농업정보서비스, 중소기업개발센터네트워크, IESC(International Executive Service Corps: IESC)사 및 해외무역자료네트워크 등이 있다.

이 사이트는 기본적으로 미국 수출업자가 수출할 때 여러 정부기관에 제출해야만 하는 서류들이나 복잡한 행정절차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관련 정부기관과의 인터넷 접속 및 문의를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구체적으로 수출시 요구되는 행정절차에 대한 안내, 무역 금융에 관한 정보, 각종 무역관련 사이트에 대한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미국 수출업자들이 원하는 바른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표로 이 사이트는 주로 수출업에 대한 정보와 해당 수출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들에 의해 주로 이용하고 있다.

'TradeNet'의 회원등록은 무료이며, 회원들에게는 일종의 '개인페이지(My Trade Net)'가 제공되는데, 이를 통해 회원들은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서 자신이 선택한 일정 분야에 대해 새로운 내용들이 입수되는 경우, 이를 개별 회원의 전자메일을 통해 확인해 주거나, 'TradeNet' 사이트 안에 마련된 자신의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회원 등록시 사이트

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본인의 이름과 회사의 이름 정도뿐이어서 미국회사와의 수출입업에 관심을 가진 전세계 무역업자들이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따라서 'TradeNet'은 미국 기업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개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2) 제공 서비스의 범위

컨텐츠 측면에서 보면, 수출관련 자료실 운영과 뉴스제공 측면에서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제공되는 정보측면에서 평가해 볼 때, 처음 수출에 임하는 중소기업들이 쉽게 무역거래를 할 수 있도록 매우 쉽게 구성되어 있다. 즉, 수출적합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항목들을 열거하고 있어, 무역거래를 원하는 기업이 대상 제품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시장조사, 시장개척 그리고 가격협상에 이르기까지 수출에 필요한 일련의 업무들에 대한 유용한 지침도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무역과 관련된 각종 지원제도의 내용도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무역금융과 관련한 정부 및 개별은행 차원의 각종 대출프로그램들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거나, 관련 사이트로의 링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역관련 정보검색은 상품과 지역별로 모두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때 상품별 혹은 지역별 검색은 'TradeNet' 사이트 내에서의 검색뿐만 아니라 수출관련 사이트 전체에서의 검색도 가능하다. 또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이 원하는 정보를 자신의 데이터 베이스에 입력하여 두면,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개인 데이터 베이스에 저장되도록 하였다.

커머스 측면에서 볼 때 'TradeNet'의 거래알선서비스는 극히 제한적이다. 즉 직접적으로 거래알선을 하기보다는 'Global Trade Network'와 'International Trade Data Network'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타국의 무

역거래알선업체들이나 수입업자들이 상품구매를 위해 각종 무역관련 사이트에 올려놓은 글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수출업자와 타국의 수입업자들을 연결시키는 기능만 수행한다. 다시 말하면 ‘TradeNet’이 자체적으로 미국 수출업체의 제품과 자료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각국 정부나 ‘UNTPDC(United Nations Trade Point Development Centre)’가 운영하는 무역업체 알선사이트들을 링크로 연결시켜 적합한 수입업체를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구매제안(offer to buy)이나 판매제안(offer to sell)의 경우 ‘TradeNet’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고, 관련 링크를 이용하여 전세계에 흩어져 있는 적합한 구매자와 구입자가 서로를 찾을 수 있도록만 해주고 있다.

커뮤니티 기능에서 보면, 온라인 교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이 온라인 교육서비스도 ‘TradeNet’이 자체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대학이나 국제무역 관련 기관이 개발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링크해 두고 있다.

커넥션 측면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볼 때, ‘TradeNet’ 사이트는 Q&A란을 두어 사용자의 질문이나 제안을 받고는 있으나, 이를 주요메뉴로 두어 운영하고 있지는 않다. ‘TradeNet’은 FAQ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단순한 중간 알선자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즉 ‘무역정보센터(Trade Information Center)’나 ‘수출국(Bureau of Export Administration)’등의 사이트에 자주 들어오는 질문들을 찾을 수 있게 연결되어 있다. 질의에 대한 응답은 매우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어 질문을 올린 뒤 이틀정도 뒤에는 받아볼 수 있도록 질문자 개인 전자메일로 답변해 주고 있다.

나. ‘Usatrade.gov’

1) 사이트 개요

‘Usatrade.gov’ 사이트는 상무성(US Department of Commerce)이 제공하

는 미국 통상서비스(US Commercial Service) 사이트로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하는 미국 수출업체들의 무역을 장려하기 위해 구축되었다. 또한 전세계 100여개 해외 현지 미국 통상서비스 사무소들과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하여 이들 나라의 무역관련 뉴스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Usatrad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로는 무역컨설팅, 수출시장정보, 무역 금융지원관련 정보, 무역관련 뉴스 등이다. 특이한 사항으로 여성무역인을 위한 전용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이다. 또한 해외 수입업자들에게 미국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창구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 사이트에 등록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해당기업이 미국내에서 상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제조될 경우에는 상품이 미국 회사의 이름으로 판매되는 경우나 최종 제품의 51% 이상을 미국부품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 사이트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2) 제공되는 서비스의 범위

이 사이트에서는 미 상무성이 제공하는 모든 종류의 통상서비스를 소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전세계의 미국 수출업체들에게 무역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세계 미 상무성 통상서비스 사무소 사이트와 링크를 시켜놓았으며, 상품 홍보를 위해 미 상무성이 마련하는 각종 박람회와 전시회에 대한 일정 및 참가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의 콘텐츠의 측면에서 볼 때, ‘Usatrade’는 수출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출 규제 품목 및 관세에 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정보 및 뉴스 제공 면에서는 인터넷 비디오 플레이어를 통해 아시아나 유럽 지역에 거주하는 유력 미국 (무역)관련 인사들이 그 지역의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 강연한 자료들이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미 상무성 통상서비스팀에서 제공하는 최신 정보도 소개되고 있다. 하지만 회원별 전자우편 및 개인적 데이터 베이스 구축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

검색의 경우에도 ‘Usatrade’ 사이트 내에 구비된 문서 중에서 해당되는 단어가 검색되도록 하고 있다.

커머스 측면의 경우 직접적인 거래알선은 전혀 제공되지 않는다. 상품 광고 역시 사이트에 직접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상품 광고가 가능한 미 상무성 주최의 대규모 박람회나 전시회를 소개하고 링크 시켜 놓고 있다. 비록 직접적인 거래알선은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현지 미 상무성 통상서비스 사무소 직원이 미국 기업이 알고자 원하는 나라나 지역의 시장성을 조사해 주는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커뮤니티나 커넥션의 측면에서는 서비스가 거의 제공되지 않고, 회원들의 개별적인 질의에 대한 전자메일 회신을 2~3일 시차를 두고 제공하고 있다.

다. ‘TradeNet.gov’와 ‘Usatrade.gov’의 비교 및 시사점

1) ‘TradeNet.gov’와 ‘Usatrade.gov’의 비교

‘Usatrade’ 사이트는 ‘TradeNet’ 사이트와 비교해볼 때 오직 정부기관에 의해서만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또한 ‘Tradenet’이 수출관련 질문들에 대해 답을 찾을 수 있는 수많은 링크들을 만들어 놓아 수출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반면, ‘Usatrade’는 풍부한 수출 촉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각 국가에 소재하는 미 통상 서비스 사무소들의 사이트들과의 연계로 전세계 무역 관련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콘텐츠를 짜놓았다. 그리고 ‘TradeNet’이 수출입품에 관련된 사이트를 링크로 묶어 놓아 간접적인 거래 알선을 도모하는 반면, ‘Usatrade’는 미 상무성 통상 서비스팀에서 제공하는 거래 알선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간접적인 거래 알선을 제공하고 있다.

‘TradeNet’과 비교해서 ‘Usatrade’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Usatrade’가 시장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 4가지의 시장 조사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중 2개는 등록회원에게만 독점적으로 제공되며, 한 가지는 일정한 금액을 받아 원하는 국가에 대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의 형태이다. 또한 제공하는 서비스의 하나로 전세계 바이어들과의 만남을 쉽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금액을 지출하면 원하는 지역에서 적절한 사업 파트너 혹은 바이어와 접촉 가능하도록 파트너 검색에서부터 약속일정 확인까지 담당하는 서비스가 있다는 점도 특이한 점이다.

2) 'TradeNet.gov'와 'Usatrade.gov'의 시사점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무역관련 공공사이트인 'TradeNet'과 'Usatrade'를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의 전자무역 촉진정책과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무엇보다도 정부의 역할에 대한 것이다. 인터넷을 활용한 무역, 즉 인터넷 등 정보기술을 활용한 미국기업의 해외수출확대를 위해서 미국 정부는 기업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수준까지만 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지원 대상기업이 중소기업이어서 해당 기업의 자체적인 정보망 또는 정보통신 설비 등으로는 무역정보의 획득 및 무역상대방의 파악 등에 한계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 정부가 'TradeNet' 및 'Usatrade'라는 사이트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다. 직접적인 거래알선 등은 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민간 기업들에게 맡기고 정부는 무역정보 제공 및 무역거래알선 사이트에 대한 간접적인 연결 등 공공적인 성격이 강한 부분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이러한 미국 정부의 전자무역 촉진정책은 전자무역과 관련한 무역거래알선사이트 및 e-마켓플레이스의 구축 등에 직접적으로 간여하기를 원하는 우리나라 정부의 전자무역 촉진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2.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촉진정책

싱가폴 정부의 전자무역 촉진정책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전자무역을 위한 무역정보 및 무역거래알선사이트 구축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다. 둘째, 전자무역을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세계 우수기업을 싱가포르에 유치하는 전략이다. 셋째,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대응하여 기존의 무역자동화 시스템을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전자무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가. 무역정보 및 무역거래알선 사이트의 구축

싱가폴 정부는 싱가포르 기업의 국제교역활동의 지원 및 해외기업의 싱가포르 기업과의 교역증진을 위한 무역정보 및 무역거래알선 사이트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이트로 ‘eBizAsiaLink.com’과 ‘EIMSingapore.com’이 있다. 이 사이트들은 모두 ‘Singapore Information Services Pte Ltd (SIS)’라는 회사에 의해서 구축·운영되고 있다. ‘SIS’는 싱가포르 무역개발청(Trade and Development Boards: TDB)이 100% 지분을 소유한 국영기업이다. 따라서 정부가 전자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무역정보 및 무역거래알선사이트를 구축·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eBizAsiaLink.com’

이 사이트는 SIS가 아시아 지역에서 무역과 관련해서 가장 선도적인 국제적 e-마켓플레이스로 발전시킨다는 목표하에 2000년 12월에 개설한 사이트이다. 15개 업종별 수직적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한다는 장기적인 목적을 표방하고는 있지만, 현재 사이트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평가해 볼 때는 업종별 무역정보 및 무역거래 알선사이트로 볼 수 있다. 즉, eBizAsiaLink.com을 통해 싱가포르 기업이나 외국기업은 무역관련 주요 정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직접 산업별로 무역 상대방의 물색 등 무역기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 사이트에 회원으로 등록하면 15개 산업별(전기, 산업용 기계, 기업 서비스, 음식 및 음료, 건설 서비스 등) 사이트를 통해 등록된 수입업체와 수출업체의 개요와 소재지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각 산업별로 구매 광고나 상대방에 대한 거래관련 각종 요청을 할 수 있다. 즉, ‘e-bizmatching’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기업들이 특정 기업에게 인용요청(request for quotation), 제안요청(request for proposal) 혹은 정보요청(request for information)을 할 수 있다. 또한 전략적 제휴에 대한 검색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전세계를 대상으로 새로운 사업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해 준다. 그리고 기업의 특별 요청이 있을 때에는 기업의 최근 개발 물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전자 카탈로그(e-catalogue) 서비스도 제공한다. ‘eBizAsiaLink.com’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기업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주문하고자 하는 제품의 ‘HS code’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컨텐츠 측면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보면 무역이나 수출관련 자료실 운영은 다소 미흡한 편이다. 그러나 처음 무역업을 시작하는 작은 기업들을 위한 기초 정보는 부족한 반면, 무역관련 뉴스나 아시아 지역, 국제, 싱가포르 뉴스제공 서비스도 상당히 자세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검색은 산업별 검색과 기업별 검색이 모두 가능하게 되어 있으며,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도 제공한다. 그리고 전자우편 환기(alert) 서비스도 제공된다.

커머스의 측면의 경우 거래알선 서비스가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이 산업별 카테고리에 맞춰 조건에 맞는 기업이나 상품을 찾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선택한 기업에게 구매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또한 회원으로 등록한 기업들은 ‘TradeLead’라는 서비스를 통해 판매제안(offer to sell) 및 구매제안(offer to buy)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 카탈로그(e-catalogue)를 통한 자회사의 제품광고도 가능하다.

사이트 회원등록은 현재 무료이지만, 이는 2001년 6월 30일까지만 적용되고 그 이후에는 유료서비스로 운영될 예정이다. 커뮤니티의 경우 동호회나 클럽의 개설, 강좌 개설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2) 'EIMSingapore.com'

이 사이트도 TDB 산하 공기업인 SIS가 2000년 12월에 만든 B2B포털 사이트로 전자, 산업기계 및 관련 산업에 특화하고 있다. 사이트 이름 첫 부분의 'EIM'은 'Electronics' 'Industrial Mashinery'의 이니셜을 따온 것이다. 앞서 살펴본 'eBizAsiaLink.com'이 다양한 산업에 걸쳐 무역정보 및 무역거래알선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EIMSingapore.com'는 전자, 산업기계 및 관련 산업에 초점을 맞춘 수직적 포털 사이트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산업에 종사하는 싱가포르 기업들이 회원으로 등록하면 관련 산업의 해외 사업 기회에 대한 전자메일 확인(alert)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외국 기업들은 이 사이트를 통해 수입 물품 검색이나 전략적 제휴나 합작회사 설립에 적절한 싱가포르 기업에 대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회원으로 등록하는 기업들에게 전기, 산업용 기계 그리고 관련 지원산업 등 3가지 산업별 카테고리를 통해 회사와 물품을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앞서 본 'eBizAsiaLink.com'과 같이 'e-bizmatching' 서비스, 전략적 제휴(Strategic Alliance) 검색서비스가 제공되며, 최근 신제품을 진열할 수 있도록 전자카달로그(e-catalogue) 서비스도 제공된다. 판매 제안(offer to sell) 및 구매제안(offer to buy) 등의 거래알선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서 'eBizAsiaLink.com'에 비해서 커머스 측면은 강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컨텐츠 측면의 경우 무역이나 수출관련 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이 사이트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전기, 기계산업의 뉴스 제공 서비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반도체와 정보통신 산업에 대한 정보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부가적인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컴퓨터 칩

과 트랜지스터 같은 제품의 3D 입체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전자우편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으며 상품별, 기업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홈페이지 제공 서비스는 되어 있지 않으나 개인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서비스는 가능하다. 커뮤니티의 경우 동호회 및 클럽 개설 그리고 강좌 개설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는다.

나. 전자무역 관련 기업유치 인센티브

싱가폴 정부는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의 무역정보 및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구축 이외에 실제로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무역거래라는 사업모델을 갖고 활동하는 기업을 싱가포르에 유치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이러한 인식 하에서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무역을 사업 모델로 하는 다국적기업의 싱가포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Approved Cyber Trader(ACT)'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1999년에 새롭게 마련하였다.¹³⁾

ACT 수혜와 관련한 구체적인 기준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국제적 전자상거래를 수행할 기업으로 싱가포르의 전자무역의 활성화 및 이를 통해서 싱가포르 경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에 대해서 부여된다. 단순히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주문을 받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이러한 주문의 이행, 제품의 판매, 온라인 사후서비스 등 확실한 거래를 제공해야 한다.

ACT 지위를 부여받을 경우 해당 기업이 국제적인 인터넷 거래를 통해 획득한 역외소득(offshore income)부분에 대해서 10%의 저세율(concessionary tax)이 적용된다. 동시에 선정기업이 일정규모의 신규 고정투자를 실시할 경우 투자비용의 50%까지 투자충당금(Investment Allowance) 설정을 통한 비용공제도 가능하다. 그리고 구체적 기준은 공개되고 있지 않지만

13) Budget Statement of Singapore(http://www.gov.sg/mof/bud98_txt4.html) 참조.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배당 등의 송금에 대해서 싱가포르의 원천징수세가 면제된다. 이러한 조세인센티브는 지정후 5년 동안 제공될 수 있다.

이 ACT 지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외국기업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며, 싱가포르 국내기업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지위를 부여받는 싱가포르 기업들은 싱가포르 이외의 지역으로 전자무역을 통한 사업확장의 기회를 제공받는 셈이 되며, 외국기업들은 싱가포르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터넷 무역 활동에 돌입할 수 있는 기반으로 활용하게 된다. 1999년에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0년 한 해 동안 3개 기업이 ACT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들 3개 기업 중 기업명이 공개된 경우는 'NECX Asia'¹⁴⁾로 이 기업은 전자업종의 전세계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고 있는 미국의 NECX社와 일본의 Smimoto사가 50대 50으로 투자하여 설립한 아시아 지역 전자업종 e-마켓플레이스이다.

다. 정형화된 전자무역 시스템의 확대·발전

싱가폴은 'TradeNet'이라는 무역자동화 통합시스템, 즉 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핵심부분을 1989년에 이미 도입했었다. 'TradeNet'이 처음 도입되면서 무역승인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2일에서 15~30분으로 감소하였다. 이후로 많은 무역관련 기관들이 'TradeNet'에 연계하여 전자무역시스템을 도입하였고, 1999년에 새로운 버전의 'TradeNet'의 도입으로 무역승인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1~3분으로 급격히 줄어들었다.

이러한 'TradeNet' 시스템의 효율성에도 불구하고 'TradeNet'은 기본적으로 EDI에 기반을 두고 있는 폐쇄적 시스템으로 인터넷 환경과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인식한 싱가포르 정부는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면서 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TradeNet Plus'라는 확대된 전자무역시

14) <http://www.necxasia.com.sg>.

시스템을 2001년 말까지 새롭게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¹⁵⁾ 이 프로젝트의 목적은 무역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과 함께 인터넷상으로 이 'TradeNet Plus'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TradeNet Plus'의 전자적 인프라로는 모두 22개 모듈이 계획되고 있다(〈그림 4-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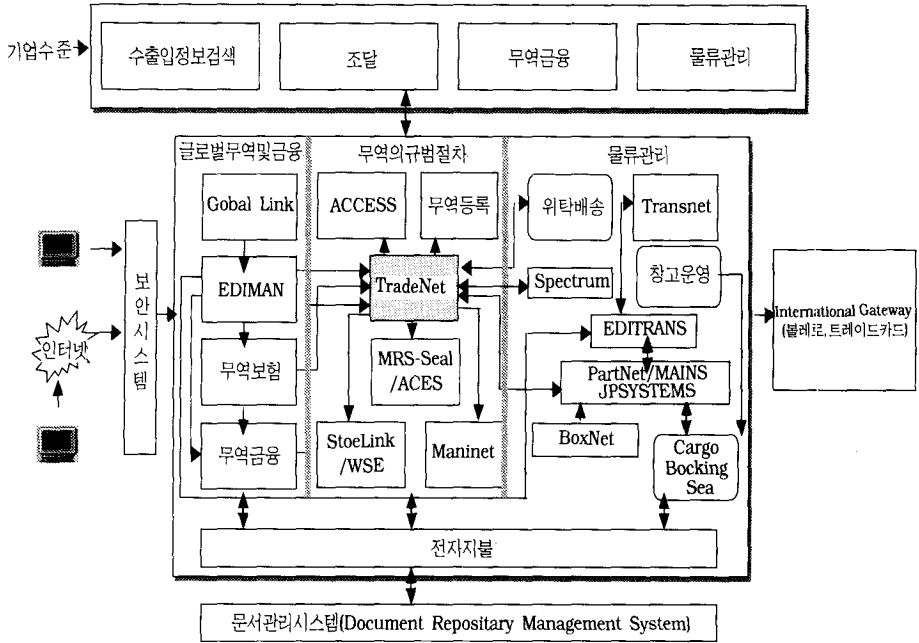
대표적인 모듈로는 기존의 'TradeNet' 시스템이외에 무역등록시스템(Trade Register System: TRS), 선박적하목록조정서(Manifest Reconciliation Statement for sea cargo: MRS)를 위한 시스템, 항공수화물EDI시스템, 무역금융시스템 및 무역보험시스템을 들 수 있다.

무역등록시스템(Trade Register System: TRS)은 TDB를 비롯한 싱가포르의 15개 정부기관에서 요구하는 무역업 등록 및 무역관련 허가에 필요한 절차들을 관장하는 윈스톱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해운화물을 위한 선박적하목록조정서(Manifest Reconciliation Statement for Sea Cargo: MRS)는 선박회사들이 싱가포르 항구에 도착할 때나 출발할 때 각각의 선박에 선적할 수 있도록 최종적으로 허가된 선박적하목록을 인터넷을 통해 TDB에 제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항공수화물EDI시스템(Spectrum and Air Cargo EDI System: ACES)은 현재 TradeNet과 함께 'Spec*Plus'라는 시스템으로 항공수화물 관련 서류처리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무역금융시스템(Trade Finance System: TFS)과 무역보험시스템(Trade Insurance System: TIS)은 아직 시험 단계에 있는 프로젝트들로서 무역금융시스템은 무역업체들이 신용장이나 지불요청서 등 무역관련 금융서류들을 전자적으로 거래은행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스템이며, 무역보험시스템은 무역업체들과 거래 보험회사들 사이에서 수하물 보험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15) TDB, Singapore: Trade Logistics Services 1999/2000; TDB, Singapore Trade Development Board: Annual Report 1998/1999.

〈그림 4-1〉 'Tradenet Plus' 모델



자료: TDB 내부자료

라. 싱가포르 전자무역 촉진정책의 시사점

지금까지 설명한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촉진정책들을 종합할 때 싱가포르의 정책은 두 가지 측면에서 체계적임을 알 수 있다. 첫째, 정형화된 전자무역과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의 조화 및 균형을 추구하고 있다. 둘째, 전자무역의 촉진과 관련해서 정부의 역할과 기업의 역할을 잘 구분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고 있다.

1) 정형화된 전자무역과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의 조화

싱가포르 전자무역 촉진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전자무역의 정형화된 측면과 비정형화된 측면이 최상의 보완을 이룰 수 있도록 정부정책이 추진되

고 있다는 점이다. 전자무역의 활성화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상호 보완적일 때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인터넷의 출현 이전에 이미 상당히 진전된 무역 EDI를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정형화된 전자무역과 접목시키지 않고서는 이 두 측면의 결합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얻을 수 없다. 싱가포르의 기존 무역 EDI인 'TradeNet'을 모든 관련 EDI와 함께 인터넷 환경에 맞게 'TradeNet Plus'로 통합·구축하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을 통해서 비정형화된 전자무역과 정형화된 전자무역이 통합됨으로써 무역활동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다.

동시에 싱가포르에서는 항만, 공항, 물류, 운송, 세관 등 무역관련 오프라인 인프라가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무역의 촉진은 무역확대 및 무역효율화 증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싱가포르의 기존 오프라인 무역인프라가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무역인프라가 온라인 전자무역의 활성화와 함께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2) 정부와 기업의 적절한 역할 구분

싱가포르 전자무역 촉진정책의 또 다른 강점은 정책추진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설정이다. 정부는 전자무역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주력하고, 실제적인 전자무역의 실행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맡도록 유도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무역의 정착과 확대를 위한 기술적, 사회적 인프라의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이 싱가포르에 거점을 두고 전자무역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 정부는 전자무역 활동의 여러 단계 중에서 구체적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부분만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자무역의 원활화를 위한 각종 기능의 조정 및 통합을 담당하고 있다. 전자무역의 활동 중 직접 수행하고 있는 부분은 비정형화된 부분에서 무역정보 및 무역거래알선을 위한

사이트를 운영하는 것이다. 이 활동은 공공적 성격의 업무에 한정된 것으로 무역관련 정보제공 및 거래알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통합적으로 하나의 기관, 즉 'TDB' 산하의 공기업인 'SIS'가 담당함으로써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전자무역의 원활화를 위한 각종 관련 정부기능의 조정 및 통합은 'TradeNet Plus' 사업을 통해서 정형화된 전자무역 전 분야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전자무역의 실제적인 구현은 파격적인 인센티브의 제공을 통해 국제적 e-마켓플레이스를 전문적으로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는 다국적기업을 유치하거나, 그러한 싱가포르 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추구하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e-마켓플레이스 업체가 싱가포르에 소재할 경우 전자무역 전반에 미칠 파급효과를 싱가포르 정부가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3. 전자무역 전문시스템 분석

가. 트레이드카드시스템

트레이드카드시스템(Trade Card System: 이하 트레이드카드)은 세계무역센터(WTCA)의 '신용장없는 무역'이라는 아이디어에서 시작된 것이다. 트레이드카드는 다수의 정보통신 관련업체 및 금융기관의 합작투자를 통하여 개발된 전자무역방식으로, 전용통신망 및 인터넷을 통해 선적 관련 서류의 전자전송은 물론 무역금융 및 보험, 대금결제, 물류 등 수출입 전과정을 자동화한 것이다.

트레이드카드의 가장 큰 특징은 신용장을 개설할 필요 없이 전자통신을 통해 수출입서류전송에서 대금결제까지 일련의 과정을 가상공간상에서 처리한다는 것이다. 신용장 개설이 필요 없게 된 이유는 국제무역거래에 신용카드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즉, 무역업체가 트레이드카드에 회원으

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BOA(Bank of America)社, 국제무역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ABN-AMRO社, 물류서비스를 제공할 ACS社 등이 전략적 파트너로 참가하고 있다.

트레이드카드를 활용한 전자무역 흐름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① 수입업자가 트레이드카드 본부에 신용공여를 요청하면, 트레이드카드는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보험회사로부터 이를 통지하여 신용도 측정결과를 통보 받는다.
- ② 수입업자의 신용도를 바탕으로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은행에서는 무역거래 한도를 설정해주고 이를 다시 본부에 통보한다.
- ③ 시스템운영자는 동 거래한도 등 수입업체와 관련된 정보를 시스템에 입력함과 동시에 수입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준다.
- ④ 신용한도를 통보받은 수입업체는 시스템 운영자를 매개체로 하여 수출업체와 무역계약을 체결한다. 이 무역계약은 시스템이 제공하는 전자무역계약서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데, 수입업체가 무역계약에 따라 계약서에 전자서명을 한 후, 무역계약에서 정한 유효기간 내 시스템운영자에게 전송한다. 그리고 시스템은 전자무역계약서의 기재 내용과 수입업체의 신용한도 등을 자동 점검한 이후 전자무역계약서를 수출업체에게 전송한다. 수출업체가 전자무역계약서를 검토한 후 전자서명을 하게 되면 무역계약이 성립하게 된다.
- ⑤ 무역계약이 성립되면 수출업체는 운송대리인에게 선적요청서와 전자무역계약서를 보낸다.
- ⑥ 운송대리인은 선하증권과 보험증권 서류를 작성하여 시스템운영자에게 보내게 된다. 선하증권과 보험증권 서류를 받은 시스템은 선하증권 서류와 전자무역계약서의 일치여부를 자동 점검한 이후 선하증권 서류를 운송업체에 전송한다.
- ⑦ 운송업체는 수출화물을 인수한 후 선하증권에 전자서명을 하고, 이

를 시스템운영자에게 다시 돌려보낸다.

- ⑧ 전자선하증권을 전송받은 시스템운영자는 전자무역계약서와의 일치 여부를 자동 검사한 후, 전자서명이 된 선하증권과 보험증권을 수입업체 및 운송업체에 보내주고, 동시에 전략적 제휴관계에 있는 거래은행에게 대금지급을 요청한다.
- ⑨ 거래은행은 수출업체 거래은행에 대금을 송금하고, 수입업체는 수입대금을 거래은행에게 지급하게 되면 무역거래한도는 원래대로 회복된다.

트레이드카드의 수수료는 수입대금의 약 2~3%에 달하는 신용장 개설비용의 절감은 물론, 거래기간을 현재보다 1/5정도 단축하고, 무역업무처리시간을 최대 80%까지 단축할 수 있어 수출입 부대비용 절감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성 및 현금유동성 등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은행의 신용보증기능을 활용하면서도 전 거래과정이 보험으로 처리돼 수출입대금을 보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중소기업간의 무역거래시 담보부족 등에 따른 금융애로를 해결해주는 기능도 갖는다. 트레이드카드의 주요 기대효과를 정리하면 <표 4-1>과 같다.

트레이드카드와 관련 현재 한국에서는 종합상사로는 LG상사, 금융기관으로 산업은행이 참여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1999년 2월에 세계무역센터(WTCA)와 트레이드카드 도입에 관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업무를 추진 중이며 LG상사도 미국 트레이드카드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시험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표 4-1〉 트레이드카드의 장점

- 모든 무역거래과정이 인터넷 상에서 이루어지는 E-EDI (Enhanced Electronic Data Interchange) 방식에 의한 국제무역 절차의 단순화
- 거래은행의 신용확득시 건별로 신용장 개설 없이 무역거래 가능
- 시스템운영자가 무역거래 지급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전자적으로 검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은행의 개입 없이 수출업자 및 수입업자의 전자계약서의 수정 및 처리과정이 확인가능
- 수출업자와 수입업자가 해당 거래의 모든 조건들에 동의하게 됨에 따라 수입업자는 담보제공없이 신용공여은행으로부터 제공받은 신용을 바탕으로 거래가 가능하며 수출업자는 안전하게 수출대금확보 가능
- 중앙처리의 장점: 거래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체증이나 지연을 확인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음에 따른 오류발생 최소화
- 비용절감: 거래비용이 모두 공개되고 계약의 일부로 다루어짐. 이로 인해 모든 참여자들에 의해 현금흐름이 모니터되고 조정될 수 있음. 이는 시간단축과 기업생산성 및 현금유동성 제고로 연결됨

수입업자	수출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무역절차 간소화 · 무역거래 수수료 절감 · 참여금융기관의 회전식 신용계정 이용으로 인한 현금 유동성 향상 · 전자적 검증방식의 무역거래처리로 신속한 거래가능 · 직접적 거래과정의 제어로 유연성 확보 · 인건비, 통신료 등 부대비용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무역절차 간소화 · 무역거래 수수료 절감 · 사전수출금융가능 · 신속한 수출대금지급으로 현금유동성 향상 · 금융기관에 의한 대금결제보증으로 안정성 확보 · 인건비, 통신료 등 부대비용절감
운송업자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속한 무역절차처리(서류작성시간 및 선적 지연감소) · 기존 경영자원으로 더 많은 거래 수용가능 · 현금유동성 향상(신속한 대금결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은 투자비용으로 고객에게 편리한 전자 무역거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 · 기존 무역 서류처리업무의 아웃소싱으로 보다 생산성 있는 업무 창출가능 · 무역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신규고객창출 가능 · 수출,수입업자를 상대로 국제금융서비스 제공가능(수출업체: 사전수출금융, 수입업체: 신용거래제공)

자료: <http://www.tradecard.com/>

나. 볼레로

볼레로는 1994년 6월에 영국, 홍콩,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등의 해상 운송회사와 은행, 통신회사 등이 참여해 컨소시엄 형태로 시작한 전자무역서류 교환시스템으로, 현재에는 국제적인 금융결제망 운영회사인 'SWIFT'와 전세계 해상운송부문을 대표하는 'TT Club'¹⁶⁾이 공동으로 설립한 볼레로(Bolero)¹⁷⁾협회가 운영중이다.

볼레로의 초기 설립의 목적은 선하증권을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단순히 선하증권만 전자화해서는 전자무역에 큰 기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선하증권뿐만 아니라 모든 무역서류를 전자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의 범위를 확장하고 있다.¹⁸⁾

기존 EDI와의 차이는 기존 EDI가 통신상에서 단순히 데이터만을 전송하는 행위인 반면, 볼레로 서비스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계약서를 통신상에서 전송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따라서 볼레로는 무역서류의 전자적 교환을 위한 법률적 기반과 기술적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볼레로의 법률적 기반은 상품계약, 운송계약, 보험계약 등 무역거래 대상자산의 소유권에 관련된 문서들의 전자적 교환에 필요한 법적 틀로, 무역관련 계약에 통용될 수 있는 규정집(Rule Book)을 통해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러한 'Rule Book' 방식을 통해 법적 구속력이 성립됨으로써 기

16) TTClub(Through Transport Club)은 해상화물 운송 부문의 협력체로 80여개국의 운송업자, 운송주선인, 항만당국 등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컨테이너 선단의 2/3, 1,725개의 항만시설, 5,890사의 운송업자가 참여하고 있다.

(<http://www.bolero1td.com/whois/ttclub.htm>)

17) Bill of Lading for Europe, Bill of Lading Electronic Registry Organization의 약어.

18)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안병수(2000) 참조.

존 국제 및 국내 법규는 상충관계가 아닌 보완관계로 형성되게 되었다.

블레로의 기술적 기반은 메시징 구조와 안전한 전자문서의 송수신을 위한 보안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메시징 시스템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전자문서 교환을 위해 인터넷 메일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다. 블레로의 참가자들은 'Gateway' 방식으로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인터넷과 접속된 PC와 IC카드 리더기, IC카드 등의 단순한 시스템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블레로는 현재 전세계 18개 무역권¹⁹⁾에 대한 법률 분석을 완료하고 시범서비스 기간을 거쳐 상용서비스의 출범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시장분야로는 농산물(도매), 가공식품, 화학품(도매), 생활용품, 완구, 컴퓨터기기, 전자기기, 자동차용품, 축산품, 원유, 도자기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장할 예정이다.

블레로는 국제 금융결제 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SWIFT'와 무역 운송 관련 보험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TT Club'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SWIFT'는 전자자료 교환에 대한 국제적인 공신력을 기반으로, 인증서비스를 부가하여 고도의 보안과 공증이 필요한 무역관련 서류의 전자적 교환업무에서 확고한 입지를 확보할 것으로 보인다.

블레로는 대규모 기업들을 고객으로 확보함으로써 전 세계 무역거래의 80%를 자신들의 서비스로 수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선하증권과 같은 협상서류들이 현재 EDI로 처리되지 못하기 때문에 블레로 서비스를 통해서 전자적인 교환이 가능하게 되면 자신들의 시장형성이 용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한국정보통신(KTNET)이 블레로와 전략적 제휴를 시작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일본, 싱가포르

19) 미국, 벨기에, 영국,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네델란드, UAE,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한국, 대만, 태국.

플, 홍콩, 대만과 같은 아시아 주요 무역국의 관련 업체들도 볼레로에 가입하고 있다.

다. 트레이드카드와 볼레로의 비교 및 시사점

1) 트레이드카드와 볼레로의 비교

트레이드카드와 볼레로와 같은 상업적인 전문 전자무역시스템이 출현하면서 본격적인 글로벌 차원의 전자무역이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두 시스템 모두 현재까지 출현한 최선의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무역서류의 전자화 및 그 중개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사업목표도 같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접근방식은 차이가 있다. 볼레로는 전자식 선하증권의 유통을 중심으로 하여 무역서류의 전자화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비하여, 트레이드카드는 무역대금의 결제과정에서 신용장을 배제하고 자신들이 설계한 시스템 내에서 계약의 체결, 계약이행을 증명하는 서류의 제공, 그러한 서류의 일치 여부 점검과 대금지급의 지시 등을 수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레이드카드의 장점은 전통적 무역에서 가장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던 신용장 개설이라는 과정을 제거함으로써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절차를 개선하여 안전한 무역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러나 이에 비하여 정형화된 사용료 부담과 이용 가능한 무역거래규모의 제약 및 거래쌍방이 모두 트레이드카드를 이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약 등의 단점도 있다.

볼레로는 기존의 거래절차를 수용하였기 때문에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이 뛰어나고 무역유관 조직의 저항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다양한 지역의 법률을 반영한 규범인 'Rule Book'을 통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것은 향후 전자무역활성화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수용하

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전자적 처리의 효율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며, 높은 사용료에 따른 이용자 제한 등의 단점도 있다.

〈표 4-2〉 불레로와 트레이드카드의 장단점

	블레로	트레이드카드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 무역유관조직의 저항 최소화 - 다양한 지역의 법률을 반영한 Rulebook을 통한 법적 안정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과정의 단순화 - 거래비용 절감 - 거래관계 개선 및 정보이용가능성 증대 - 신용한도내 지급보증 - 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 안전한 무역환경 제공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높은 거래비용 - 기존 시스템을 그대로 수용하여 상대적으로 자동화 효과가 낮음 - 거래노출에 따른 저항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형화되어 있는 사용료 - 거래규모 및 사용국가의 제한 - 수출대금의 신속한 회수 불가 - 수출자의 신용도 파악 불가능 - 전체 사용자의 회원가입 요구

자료: 문희철, '전자무역 결제시스템의 현황과 전망', 2000. 10.

2) 시사점

전자무역의 신조류로서 트레이드카드와 불레로는 전통무역의 정형화부문을 전자무역으로 대체한다는 시도라는 점과 이를 사업과 연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즉, 향후 전자무역이 무역의 전과정에서 전통무역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하겠다.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 무역 당사국의 현지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문서의 조회, 확인, 인증 및 결제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트레이드카드와 불레로가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개발되었다는 점에서 전자무역의 추진과 관련, 이들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트레이드카드나 불레로는 그 자체가 전자무역을 핵심으로 한 하나의 글

로벌 비즈니스모델이라는 점에서 정부차원이 아닌 민간차원에서 국내 관련 업계가 자발적으로 참여 또는 제휴 등을 통해서 수용 또는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다만, 현재 우리의 공공 무역자동화시스템이 트레이드카드나 볼레로 등과 호환성 있게 연결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반드시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트레이드카드나 볼레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정착되면 이들 시스템을 활용하는 국내 무역관련 업체들이 늘어날 것이다. 그러나 이들 시스템은 국내의 모든 무역절차를 포괄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이들 시스템을 활용하는 국내 무역관련 업체들이 이들 시스템에서 다루지 못하는 전자무역 관련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만약 우리의 무역자동화 시스템이 트레이드카드나 볼레로와 같은 새로운 전자무역시스템과 호환성 있게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된다거나 또는 별도로 국내 무역자동화시스템에 접속해야 한다면 전자무역은 오히려 기업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무역자동화시스템이 트레이드카드나 볼레로와 같은 새로운 전자무역시스템과 단절없이 연결되도록 개방형 시스템으로 발전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단순히 트레이드카드나 볼레로와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또 다른 어떤 전자무역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그 시스템도 수용할 수 있는 개방형 무역자동화시스템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제5장 한국의 전자무역 활성화방안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의 국내외 동향을 몇 가지 각도에서 고찰하였다. 즉, 거래절차에 따른 전자무역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전자무역과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으로 나누어 국내 동향을 살펴보고, 전자무역의 사업형태를 기준으로 무역거래알선사이트와 국제 e-마켓플레이스의 현황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또한 미국의 공공 무역거래알선사이트 분석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촉진정책도 검토하였고,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레이드카드 및 블레로 시스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전자무역 관련 국내외 최근동향의 분석은 결국 향후 전자무역을 통한 우리나라의 무역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 연결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목표하에 현재 전자무역의 활성화의 장애요인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들을 제시한다.

전자무역활성화를 위한 장애요인과 극복방안은 본 연구의 분석체계를 종합하는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네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활성화이다. 둘째, 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효율성 제고이다. 셋째,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대응이다. 넷째,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다. 이러한 분야별 논의는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전자무역 관련 정책제안의 유용한 틀이 될 수 있다.

첫 번째 논의사항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로 인터넷을 활용하는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을 통해서 수출을 확대시킬 수 있겠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 기업들의 인터넷을 통한 수출마케팅 능력이 제고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인 비정형화된 전자무역 시스템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즉, 비정형

화된 전자무역과 관련한 현재의 민간 및 공공기관의 활동이 과연 우리 기업들의 해외시장개척에 있어서 정보제공적인 측면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모두 효율적이며,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점이다.

두 번째 사항인 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효율성 문제는 근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그동안 추진해 온 무역자동화 사업이 정부주도의 공급자입장에서 효율적으로 투자되었는가 하는 점과 사용자인 기업입장에서 볼 때 과연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다음으로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개방적인 무역자동화 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즉, 기존의 폐쇄적인 무역자동화시스템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개방적인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로 유연성을 갖고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비정형화된 전자무역과 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효율성과 관련된 논의쟁점은 일단 국내적인 차원에 제한하여 논의되고, 관련 활성화정책도 그러한 관점에서 제시된다. 그러나 국내에 제한적인 전자무역활성화 논의만으로는 전자무역의 혜택을 최대화시킬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글로벌 전자무역 체계구축에 대한 우리 나라의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전자무역 동향 중에서 글로벌 전자무역 체계와 관련되는 것은 국제 e-마켓플레이스의 확대 및 글로벌 전자무역 구축을 위한 트레이드카드와 볼레로시스템에 관한 내용이다. 그 외에 전자무역과 관련된 국제논의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다루는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인프라의 확대는 국내 및 글로벌 차원의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기본적인 여건조성에 과연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관련 정책대응을 다룬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인식제고, 전문인력양성, 법제도적 인프라 등이 점점된다.

1.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활성화

가. 주요 문제점

1) 중소기업의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에 대한 낮은 활용도

인터넷을 통한 기업과 상품에 대한 광고 및 무역거래 상대방에 대한 검색, 무역관련 주요 정보의 탐색 및 온라인상 주요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 등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의 주요 활동들은 정보력과 네트워크 능력이 결여된 중소기업들에게 수출마케팅 및 해외시장개척에 크게 활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전자무역활용도는 아직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소기업이나 중소기업체들의 전자무역에 대한 대응수준이 낮은 원인은 무엇보다도 전통적 무역방식이 급격하게 전자무역 방식으로 변화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서 전자무역으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전자무역의 도입의지가 부족하거나 도입방법에 대한 정부의 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무역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자사제품과 기업 관련한 홈페이지 및 전자카탈로그의 구현과 관련한 중소기업체들의 도입실적은 대기업 등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하다. 중소기업 중 현재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전체의 50%에 불과하며 전자무역을 이용한 수출계약은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전자무역에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이러한 노력이 미흡하다. 제조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지만, 국제무역에 노하우나 경쟁력이 없는 중소기업, 특히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이 미흡하다. 비록 무역관련 공공기관이나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무역거래알선사이트 등을 비롯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기술적 수준과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여 그 실효성은 낮은 것

으로 평가된다.

2)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중복투자

무역유관기관 및 민간 거래알선사이트들이 경쟁적으로 투자를 늘리고 있어 중복투자의 문제가 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의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무역거래알선사이트들은 민간 무역거래알선사이트에 비해서 차별성이 거의 없거나 오히려 콘텐츠와 무역업무 관련 통합서비스의 제공 등 여러 면에서 뒤떨어진다는 점에서 중복투자 또는 비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미 세계적인 e-마켓플레이스를 형성하고 있는 글로벌소시스와 같은 해외 민간전문거래알선사이트들은 무역업무 전반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점차 전문화되고 세밀하게 변화하는 고객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유관기관 및 지방정부, 종합상사와 민간거래알선사이트들은 대동소이한 서비스들을 내놓고 있어 중복투자의 우려가 제기된다.

무역유관기관 및 민간 거래알선사이트들의 중복투자를 해소하고, 전자무역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실크로드21’의 제 1차, 제 2차 기본계획에 따르면 ‘실크로드21’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가 글로벌마켓에서 유통되고 있는 오피정보의 상당부분을 통합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국내중소업체에 일괄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국내 수출중소업체들의 높은 오피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오피 정보를 글로벌시장에 포스팅함으로써 해외 바이어들에 대한 노출기회를 극대화하고, 그 결과 수출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 때는 ‘실크로드21’의 역할에 대한 불분명성으로 한국무역협회와 ‘KINET’으로부터 분사하여 민간법인으로 독립된 ‘EC21’ 및 ‘EC PLAZA’가 이 계획에서 이탈하여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러한 경험은 기존 공공유관기관의 무역거래알선사이트에 대한 중복투자의 방지 및 관

런 공공기관간 협력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제기시키고 있다. 다만, 최근에 이러한 중복투자를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관련 기관간 협력노력이 결실을 맺어 각 무역거래알선 사이트의 오픈 및 기업정보를 통합검색하고 관련 사이트로 바로 연결시키는 ‘실크로드21 프로젝트’가 제 기능을 발휘하면서 향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3)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의 리스크 관리 부재

전자무역의 특성인 비대면성을 이용한 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사기 및 부정거래는 전자무역을 활성화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전자상거래의 기반인 신뢰성이 확보되지 못한다고 인식할 경우, 일반 중소기업은 전자무역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전자무역거래를 위장한 사기 거래의 적발을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으로 인터넷 무역 사기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할 수 있는 공공의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나. 정책대응방안

1)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현장지원 강화

전자무역은 무역과 관련된 모든 기업들에게 유용한 무역방식이지만, 특히 중소기업은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비용절감 및 새로운 시장개척 등에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과 인력의 한계, IT 인프라 및 기술투자 미비, 전자상거래 참여기회 제한과 주도권 상실에 따른 성장여력 한계 등으로 전자무역에서 계속 배제되는 악순환에 빠질 위험이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해외사례분석에서도 살펴봐왔듯이 미국 및 싱가포르에서 전자무역의 지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지원 대상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었다.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소기업의 전자무역에 대한 현장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이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의 홈페이지 구축, 전자카타로그의 작성, 주요 공공무역거래알선사이트를 통한 무역정보 검색 및 인터넷을 통한 무역상담의 실시 등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의 다양한 부분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자무역을 통해서 실제로 수출거래를 체결하는 성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밀착형 지원을 전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전자무역의 실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곧바로 해결해 주고, 나아가서 중소기업 스스로 전자무역의 응용범위를 확장시켜 나가도록 지도해주는 지원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중소기업에 대한 전자무역 현장지원을 누가(기관과 인력)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실질적인 정책수행의 핵심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지원을 위해서 새로운 지원기관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현재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각종 기관과 전자상거래 관련 지원기관 등 기존 기관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또한 전국 대학의 전자무역관련 전문인력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이며 효과도 클 것이다.

전자무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현장지원기관으로는 산자부 소관의 47개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중소기업청 소관의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수출지원센터, 정보통신부 소관의 소프트웨어진흥원, KOTRA 지방사무소,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사 등이 있다. 이들 지원기관들을 가능한 한 장소로 집적시켜서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지원활동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지원기관이 물리적으로 분산된 경우에 비해서 집적된 경우 지원효과는 큰 차이가 있다. 선진국에서 전자무역을 포함한 기업의 e-비즈니스 활동 및 기타 기업경영활동을 현장에서 지원하기 위해 각종 기관들이 집적되어 있다.

단순히 관련 현장 지원기관들을 집적시키는 것만으로는 전자무역의 활

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지원기관간 협력을 유도하고 조정하는 전자무역 전문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인 조정방안으로 이 집적된 시설에 전자무역관련 업계대표기관과 대학이 합동으로 전자무역 관련 전문인력을 파견하여, 이들 기관들의 기능이 전자무역과 어떠한 관계가 있으며, 현장의 기업들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조정해주고 협력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조정과 협력이 이루어질 경우 이들 기관들의 지원활동의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범부처적 차원에서 이러한 집적시설의 설치 및 전문인력 파견을 위한 재정지원 등의 활동을 전개한다면 지방의 중소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은 크게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뒤에서 인프라 부분에서도 언급되겠지만, 지방 정보화의 여건 미비로 인한 지방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부진의 문제 해결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지방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에 초고속통신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조속히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무역에 필요한 솔루션을 공급하는 응용서비스제공사업자(Application Service Provider: ASP)가 전자무역을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전자무역 솔루션과 함께 기업경영 및 무역과 관련된 정보시스템도 패키지 형태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

2) 무역거래알선 정보 및 데이터베이스의 공유

현재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을 선도하고 있는 것은 무역거래알선사이트들이다. 주요 종합상사, 무역관련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여러 무역거래 알선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는 바, 이들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효과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중복투자를 피하고, 각 사이트들이 갖추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공유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주도(공공기관 포함) 중소기업지원 무역거래알선사이트는 대표적으로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있으나 거의 동일한

서비스의 내용을 제공하고 있어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중복과잉투자가 되고 있다. 특히 상품정보의 2중, 3중 등록으로 공공자원사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운영의 무역거래알선사이트는 그 성격이 유사한 것은 가급적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공공기관이 주축이 된 무역관련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이들을 연계 및 집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싱가포르의 경우 SIS사라는 TDB산하의 공기업이 무역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집적하고 이를 공유하는 핵심적 위치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에서는 우선 지역별, 산업별 공공 데이터베이스의 공유를 정부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전자무역 공공데이터베이스 공유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3) 전자무역에 따른 리스트 최소화 장치 마련

인터넷의 비대면성에 따른 전자무역거래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서 인터넷무역 사기 신고사이트를 구축하는 방안이 수립되어야 한다. 즉, 인터넷무역사기 사례와 불량 바이어에 관한 정보를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 구축하는 방안이 효율적일 것이다. 정부가 현재 KOTRA 사이트에 이러한 인터넷무역 사기 신고사이트를 구축할 계획을 수립(산업자원부, 2001)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무역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 있도록 해외 기업에 대한 신용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고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산업자원부, 2001).

2. 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효율성 제고

가. 주요 문제점

본 연구의 전자무역 현황 부분에서 정형화된 전자무역에 관해서 논의할 때 제시되었듯이, 지난 1991년부터 무역업무자동화 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높은 이용료 부담, 업계의 인식부족, 서비스의 불연속성 등으로 상역 및 외환부분 등 일부 부분의 경우 이용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EDI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무역 및 통관망(KTNET), 물류망(KL-Net) 등의 EDI 전담사업자제도는 무역자동화의 시초로서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은 웹중심의 환경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독점적 사업구조로 인해 EDI 보급·확산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독점적 사업구조로 인해 높은 수수료, 서비스의 질 저하, 기술개발 부진, 민간 VAN 사업자의 사업의욕 저하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 동안 VAN 방식의 EDI는 최근 인터넷을 이용한 웹 EDI 서비스로 변화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응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리고 기존 무역 EDI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신속하게 웹 기반의 무역 EDI로 전환해야 하는 과제도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인터넷 EDI의 수요증가와 함께 대기업들이 독자적인 무역자동화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국가적으로 중복투자와 비효율이 우려되고 있어 정부차원의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무역절차의 전과정에 걸친 가치사슬상의 정보흐름을 통합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도 있다. 즉, 무역 및 통관망, 물류망 등의 EDI 전담사업자 및 하역정보시스템, 통관정보시스템, 보험정보시스템, 금융정보시스템이 유기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다.

나. 정책대응방안

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재의 VAN 방식의 무역 EDI를 인터넷 환경에 맞는 무역자동화시스템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터넷 방식의 웹 EDI는 사용자가 VAN 방식의 경우와 같은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큰 투자비용없이 참여할 수 있어 중소기업 등 보다 많은 기업들이 무역자동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별로 별도의 EDI 구축에 따른 중복투자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웹 EDI 방식으로 신속하게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 개편작업은 상역이나 외환뿐만 아니라 수출입승인, 원산지증명, 신용장, 적하보험 등 계약이후 나타나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능한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단순히 시스템만을 VAN 방식에서 인터넷 방식으로 변경하는 수준에서 개편이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상관습 등의 이유로 그 동안 무역자동화 분야에서 제외되었던 사항들도 포함시켜서 계약이후 모든 과정이 인터넷을 통해서 단절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무역자동화 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중요한 것이 통관, 물류, 항만, 결제, 보험 등 모든 계약이후 절차의 자동화를 위한 시스템들의 조정 및 통합작업이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무역자동화시스템과 물류자동화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작업이다. 무역절차의 전과정에 걸친 가치사슬상의 정보흐름을 통합할 수 있는 국가적인 무역정보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차원에서의 노력과 협동이 매우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의 통합작업은 싱가포르의 'TradeNet Plus'가 벤치마킹의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TradeNet Plus'는 22개의 기존 무역관련 정보시스

템 등을 하나의 프레임워크 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재설계하는 작업이다. 이 작업의 핵심정보시스템은 무역자동화망인 'TradeNet'과 물류부문의 'EDI Trans'가 중심이다. 이러한 통합적 무역자동화시스템의 구축은 향후 우리나라의 무역관련 모든 시스템의 통합을 위한 작업의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3.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대응

가. 주요 문제점

글로벌 차원의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응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동향만을 놓고 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 첫째, 미국 등 전세계적인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가 산업별로 구축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나라 기업들의 참여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트레이드카드, 볼레로시스템 등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이 유연적이지 못하다는 점이다.

1)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참여수준 저조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참여를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내 e-마켓플레이스가 선행적으로 발전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 특히 e-마켓플레이스의 발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기업간 협업문화가 국내 업계에서는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온라인 기업과 오프라인 기업간의 협업문화 창출의 어려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문화 창출의 어려움, 동일업종내 경쟁재별기업간 배타적인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으로 국내에서 e-마켓플레이스가 성

공적으로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의 구축에서 국내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참여하는 경우는 당연히 드물 수밖에 없다.

2) 새로운 글로벌 전자무역에 대한 유연적 대응 부족

트레이드카드, 볼레로시스템 등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활용하기 위한 우리의 대응이 적절하지 못하다. 즉,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들에 대해서 관련된 기존 업체들이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소극적 또는 배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트레이드카드시스템이나 볼레로시스템 등은 기존 관련 업계와 경쟁적인 측면도 없지 않지만, 활용여부에 따라서는 상호보완적인 측면이 오히려 많은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공공 무역자동화시스템의 경우 이러한 새로운 전자무역시스템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이 무역관련 민간기업보다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새로운 전자무역시스템에 대한 유연성이 부족하다. 이러한 유연적이지 못한 입장이 지속될 경우, 우리의 전자무역시스템은 글로벌 전자무역시스템의 구축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나. 정책대응방안

1) e-마켓플레이스 활성화 및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 연계확대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국내 e-마켓플레이스가 효과적으로 구축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국내 주요 e-마켓플레이스간 연계 및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와의 연계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내 e-마켓플레이스의 효과적인 구축과 향후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와 연계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호환성 제고를 위한 표준화 강화노력

이 있어야 한다. 현재 전자카탈로그의 경우 산업자원부, 전자상거래연구조합, 중소기업진흥공단, 조달청, 전자산업진흥회 등 각 기관과 단체에서 내놓은 표준과 특정 업체의 개별표준,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한 업체간의 독자적인 내부 표준 등이 혼재되어 있는 양상이다. 표준화는 국제적인 호환성 측면에서 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내 e-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할 때, 가장 집중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표준화와 함께 국내 e-마켓플레이스가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와 연계되기 위해서는 국내 e-마켓플레이스가 비즈니스모델로서 손색이 없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주요 산업별로 경쟁관계에 있는 재벌기업들이 동일한 성격의 마켓플레이스를 구축하면서 상호 배타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은 전자무역을 활성화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전자무역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기업들의 의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조정이 필요하다 하겠다.

e-마켓플레이스의 활성화 및 연계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e-마켓플레이스 이용자에 대한 지원강화가 필요하다. e-마켓플레이스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전국에 소재하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해당 업종의 e-마켓플레이스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능숙한 사용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자금과 인력에서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서 최신의 e-마켓플레이스를 손쉽게 이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전국에 소재하는 47개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ECRC), 전국에 소재하는 대학의 전자상거래 관련 학과의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는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많은 기업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비용절감, 판로개척 등 e-마켓플레이스를 통한 실질적인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를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새롭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해외사례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싱가포르의 경우 소위 'ACT(Approved Cyber Trader)'라는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서 전자무역을 전문적인 사업영역으로 하는 세계 유수의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

다. 최근의 한국기업이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의 중심이 되려는 정책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인터넷 합작무역 또는 e-마켓플레이스와 관련된 기업들의 국내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글로벌 전자무역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대응

본 연구에서 검토한 트레이드카드 및 볼레로시스템은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에 일조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한국정부가 이러한 시스템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시키지는 못한다. 트레이드카드이든 볼레로시스템이든 글로벌 전자무역 시스템의 일부를 구축하여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비즈니스 모델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떤 특정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들 새로운 글로벌 전자무역 시스템은 국내 무역관련 업계의 평가에 따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해서 국내에 진출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새로운 전자무역 시스템이 전자무역 촉진을 위한 정책 과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이러한 새로운 글로벌 전자무역시스템이 우리의 무역자동화시스템과 상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내 무역자동화시스템의 사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이든, 아니면 새로운 글로벌 전자무역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해서이든 이들 시스템을 사용하기 원하는 국내기업들의 선택권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국내 무역관련 기업입장에서 비용절감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트레이드카드 또는 볼레로시스템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 이들 시스템이 국내 무역자동화시스템과 연결되어야만 효율적인 전자무역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싱가포르의 'TradeNet Plus'와 같이 기존의 EDI 전담사업자의 시스템을 개방형 시스템으로 전환하여 트레이드카드, 볼레로시스템과 같은 글로벌차원의 새로운 전자무역방식을 항상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

해서 무역자동화시스템을 유연한 오픈시스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즉, 트레이드카드나 블레로시스템 또는 다른 새로운 글로벌 전자무역시스템이 개발되더라도 국내 무역자동화시스템과 충분히 연결될 수 있도록 국내 무역자동화시스템을 개방형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4.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가. 주요 문제점

앞서 논의했던 세 가지 분야에서 각각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인프라 정비와 관련된 것도 많이 있었다. 앞서 지적되지 않은 것 중에서 전자무역 확산을 위한 인프라 미비로 생각할 수 있는 사항은 전문인력의 부족과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통신인프라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1) 전자무역 전문인력 부족

전자무역의 확산과 함께 전문인력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지만 그 수요를 적시에 충족해줄 전문인력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다. 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2004년까지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수요가 매년 150~200% 가량 증가하여 2004년에는 약 68,000명의 전자무역 전문인력이 요구되고 있다(한국 무역협회 1999). 이러한 전문인력의 수요에 비해서 이를 양성해낼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기관의 인프라는 충분하지 못하다. 새로운 전자무역 전문인력을 대학교육기관을 통해서 육성해내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기존 무역인력을 전자무역인력으로 신속하게 재교육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전자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해 낼 교육시스템의 정비

도 미미한 수준이다. 전문적인 강사요원은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특히 실무경험이 전혀 없는 비전공자가 대학에서 전자무역을 강의하는 경우가 많아서 일정 수준의 능력을 보유한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양성에 애로가 있다. 실무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과정, 예를 들어 전자무역의 실습실 및 실습용 소프트웨어의 지원 등이 부족하다는 것도 전문인력 양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대학 이외의 민간 양성기관의 부족도 전자무역 전문인력 문제해결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2) 지방 중소기업을 관련 통신인프라의 부족

중소무역업체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저렴하게 이용하기에는 아직 인프라 측면에서 상당 부분이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지방에 공단이나 일반지역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ADSL과 같은 초고속통신망이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아파트와 같은 주거지역에는 초고속통신망이 확산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지방중소기업 등이 활용하기에는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나. 정책대응방안

1)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체계적 양성

전자무역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장기적으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대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에서 전자무역을 적합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수요원을 확충해야 한다. 특히 대학교육과정과 관련해서는 현재의 무역, 경제, 경영, 회계 등 유사한 학과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전자무역과 관련된 교과목을 수강하고 전문지식과 실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엄격한 학과구분에 근거한 교육체계에 상당한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이러한 정규교육과정을 통해서 전자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하는데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존 무역인력을 바로 전자무역 전문인력으로 재교육하여 공급하는 별도의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은 민간의 전문교육기관의 양성을 통해서 가능하다. 정부가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전문교육기관을 전자무역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등 체계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전문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교육은 물론 온라인 원격 교육도 실시하도록 해 단기간내에 많은 전자무역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기관내에 인터넷과 EDI 등 전자무역 전용 실습실을 갖추어야 하며 교육실습용 관련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전자무역 인력양성을 위한 민간전문 교육기관으로 ‘무역아카데미(tradecampus.com),’ ‘텔레쳐(telelecture.com) 등이 활동하고 있다. 무역아카데미의 경우 무역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텔레쳐는 수익을 추구하는 순수한 민간교육기관이다. 이처럼 교육사업에서 공공성이 큰 무역협회와 민간 전문기관이 불필요하게 경쟁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폐해는 최소화되어야 한다. 이들이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의 조정역할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전자무역 전문인력이 체계적으로 양성되기 위해서는 산·학·연이 합동으로 전자상거래 및 전자무역을 위한 표준교과과정을 확립하고 관련 교재를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우수한 전문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무역 전문가 및 교수요원양성이 필요하다. 정부차원에서 전자무역 전문 강사요원을 위한 특별과정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01년 6월에 실시할 예정인 전자무역 교수요원 해외양성 프로그램을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기로 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2) 지방 중소기업을 위한 통신인프라 확대

지방의 경우 수도권 또는 대도시권과 달리 정보화의 여건 미비로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전자무역을 활용하고 싶어도 통신망 자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지방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에 초고속통신망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들이 초고속통신망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반 아파트 주거지역보다는 투자비가 더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 바, 범정부적인 차원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중소기업을 위한 통신인프라 확대사업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전자무역의 국내외 동향을 분석하고 전자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몇 가지 각도에서 전자무역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고찰했다. 즉, 거래절차에 따른 전자무역에 대한 개념적 구분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전자무역과 비정형화된 전자무역으로 나누어 국내 동향을 살펴보고, 전자무역의 사업형태를 기준으로 무역거래알선사이트와 국제 e-마켓플레이스의 현황에 대해서 논의했다. 또한 미국의 공공 무역거래알선사이트 분석과 싱가포르의 전자무역 촉진정책도 검토하였고,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을 위한 새로운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는 트레이드카드 및 블레로시스템에 대해서도 고찰하였다.

이러한 전자무역 관련 국내외 최근동향의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네 가지 주제별로 전자무역의 장애요인과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었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본 연구결과의 가장 큰 시사점은 전자무역의 활성화가 정부보다는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역할은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주도적인 입장이 아니라 철저하게 지원자적인 입장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무역거래알선 등 비정형화된 전자무역과 e-마켓플레이스 활성화 등 역동성이 큰 전자무역 분야에서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관여하기 보다 관련된 전문 민간기업을 육성하는 관점에서 전자무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공공의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중복투자와 관련, 정부는 이들 사이트들의 기능적 중복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통합 및 관련 기관간 협력을 유도하는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공공 무역거래알선사이트들은 한국의

〈표 6-1〉 전자무역의 발전의 장애요인 및 활성화 방안

구 분	장 애 요 인	활 성 화 방 안
비정형화 전자무역의 활성화	① 중소기업의 비정형화 전자무역에 대한 낮은 활용도 - 전자무역에 대한 인식 결여 - 전자무역도입 의지 결여 - 중소 수출기업에 대한 전자무역 지원의 비효율성 ②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중복투자 - 지자체 및 중앙 공공기관 운영의 무역거래알선사이트간 차별성 부족 - 민간전문거래알선사이트와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 공공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협력 결여 ③ 비정형화 전자무역의 리스크 관리 부재 - 인터넷 무역사기거래의 적발 및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공유 미흡	① 전자무역 현장지원 강화 - 홈페이지 구축, 전자카탈로그 작성, 무역정보검색 및 상담 등 전자무역 현장 체험기회 제공 - 새로운 지원기관설립보다는 기존의 지원기관 및 전국대학 전자무역 전문인력의 활용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수출지원센터, 소프트웨어진흥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사 등을 집적시켜 효율적 지원 ② 무역거래알선사이트 중복 제거 - 공공기관 운영의 무역거래알선사이트의 통합 또는 연계강화 ③ 전자무역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장치 마련 - 인터넷무역사기 적발 및 사례공유를 위한 효율적인 사이트운영
정형화된 전자무역의 효율성 제고	- 업계 인식부족, 서비스 불연속성 등으로 낮은 이용률 - 전자무역관련 EDI사업자의 독점에 따른 폐해 - 인터넷 EDI로의 대응 미흡 - 무역절차 전과정 통합 미흡	- VAN 방식의 무역 EDI를 무역과정 전 과정을 포함한 인터넷방식의 웹 EDI로 신속한 개편 - 통관, 물류, 항만, 결제, 보험 등 자동화시스템의 통합
글로벌 전자무역 구현	① 글로벌 e-마켓플레이스 참여저조 - 온라인 오프라인 기업간 협업문화의 결여 및 동일 업종내 경쟁 재벌기업간 배타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국내 e-마켓플레이스의 발전미흡, 그 결과 국제적 e-마켓플레이스에 참여도 저조 ② 새로운 글로벌 전자무역에 대한 유연적 대응부족 - 트레이드카드, 블레로 등 새로운 전자무역시스템에 대한 소극적, 배타적 대응	① e-마켓플레이스 활성화 및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 연계확대 - 국내 e-마켓플레이스의 활성화를 위한 표준화 강화 및 동일 업종내 재벌기업간 중복투자 조정 - 국제적인 e-마켓플레이스의 국내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신설 ② 글로벌 전자무역시스템에 대한 유연적 대응 - 새로운 전자무역시스템과 연결될 수 있는 국내 무역자동화시스템을 개편
전자무역 인프라 확대	① 전자무역 전문인력부족 -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불충분 - 중장기적인 교육시스템 미비 ② 지방중소기업 통신인프라 부족 - 지방공단에 초고속통신망 미비	① 전자무역 전문인력 체계적 양성 - 기존 인력의 재교육 강화 - 전문 민간교육기관 활성화 ② 지방중소기업 통신인프라 확대 - 통신인프라 확대를 위한 지원

전자무역을 위한 통로(gateway) 역할을 하는 방향으로 특화하고, 높은 수준의 전자무역관련 서비스 활동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민간기업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편,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성격이 강한 분야에서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정부가 제시한 전자무역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이 인프라의 구축 측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았다. 중소기업의 전자무역 활성화를 위해서 각종 지원활동을 전개하더라도 지방에 소재하는 기업들은 'ADSL'과 같은 통신망이 아직 보급되지 않아 전자무역의 혜택을 볼 수 없는 처지이다. 그리고 통관, 항만, 결제 등 정형화된 전자무역 분야는 대부분 정부의 각종 행정기관과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바, 범정부 차원의 통합 및 연계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서 싱가포르의 'TradeNet Plus' 등을 벤치마킹하여 통관, 항만, 물류, 결제 등 무역의 각 분야별 정보시스템들을 단절없이 연결하고, 외부의 인터넷과도 연계시키는 통합적 전자무역 시스템을 구축하는 작업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향후 어느 나라의 전자무역시스템이 그 국가의 무역 경쟁력의 상당 부분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범부처 차원의 무역관련 시스템 통합을 위한 부처간 협력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김진우. 1999. 「인터넷 비즈니스 닷 컴」.
- 권재근·김화수. 2000. 「알기 쉬운 인터넷 무역」. 매일경제신문사.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0. 4. 『주간세계경제분석』.
- 문희철. 2001. 1. 「사이버무역 시대 국제물류의 동향과 전망」. 『사이버무역 국제 동향과 성공전략』. 굿인포메이션.
- 산업자원부. 2001. 5. 『전자무역(e-Trade) 종합육성시책』.
- _____. 2000. 5. 「국내 B2B e-마켓플레이스 급속히 확산」.
- 신일순. 2000. 4. 「OECD전자상거래·정보화통신분과 회의자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심상렬. 1997. 「인터넷 전자상거래가 무역에 미치는 영향」. 『월간무역』.
- _____. 1999. 「인터넷 무역의 성공전략」. 한국무역정보통신.
- _____. 2000. 「실크로드21의 평가와 발전방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 _____. 2001. 3. 「전자무역 국제동향」. 『전자무역 촉진 종합대책 워크샵』. 산업자원부.
- 안병수. 2000. 「사이버무역 시대를 대비한 볼레로(Bolero)와 트레이드 카드」.
- 오광석. 1999. 「국내외 전자상거래 이용 현황」. 한국전산원.
- 윤광운·장두태·김철호. 1999. 「전자상거래론」. 삼영사.
- 윤창인. 1998. 「통상관련 전자상거래 논의동향과 시사점」. 정책연구 98-18.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이성봉. 2000. 「전자상거래와 국제교역의 활성화」. 『전자상거래 국가전략 수립을 위한 분야별 정책연구』. 강홍렬외 10인 공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 이재규 외 3인. 1999. 「전자상거래원론」. 법영사.
- 이호건. 2001. 1. 「사이버무역의 현주소와 전망」. 『사이버무역 국제동향과 성공 전략』. 굿인포메이션.
- 장명진·윤광운. 2000. 11. 「우리나라 무역업체의 인터넷 무역거래알선 사이트의 활성화 방안」. 『통상정보연구』. 한국통상정보학회. 제2권 제2호.
- 정보통신부. 1996. 6. 전자상거래 활성화 종합대책.
-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보고 99-12.
- 한국경제신문. 2000년 4월 18일자 13면.

- 한국무역협회. 1999. 「사이버무역인력 수요조사 결과」.
- _____. 1999. 「전자거래알선사이트. 해외마케팅 수단으로 크게 각광」.
- _____. 2000. 11. 「전자무역중개기관 설립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 한국인터넷정보센터&전자신문사. 2000. 『인터넷연감 2000』.
- 한국전산원. 1999. 「미들웨어를 이용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구현방안에 관한 연구」
- _____. 2000. 한국인터넷백서.
- _____. 1999. 3. 볼레로(Bolero) 프로젝트 개요 및 현황.
- _____. 1999. 『전자상거래 국제협력 및 국가전략』.
- _____. 1998. 6. 「IMF 지원체제하에 EC관련 Intermediary 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현대경제연구소. 2000. Prime Business Report. 6월호.

【국외문헌】

- Bailey & Bakos. 1997 "An explanatory study of the emerging role of electronic intermediary."
- Budget Statement of Singapore. http://www.gov.sg/mof/bud98_txt4.html.
- ESPRIT. 1996. Electronic Commerce - Introduction.
- Lindermann, Markus & Runge, Alexander. 1997. "An Electronic Contracting within the Reference Model for Electronic Markets." *Journal of Marketing*.
- Paul Timmers. 1998. "Business Models for electronic Markets." *Electronic Markets*, Vol.8.
- Singapore Launches Electronic Commerce Masterplan. http://www.s-one.gov.sg/media_rm/press/1998/p_rtcl36.html.
- S. Sivanesan and V. Janaki, Rodyk and Davidson. E-Commerce in Singapore. http://www.prac.org/materials/2000_Tokyo/Ecommerce_Singapore.html.
- TDB. 1999/2000. Singapore: Trade Logistics Services.
- _____. 1999/2000. Singapore Trade Development Board: Annual Report.
- WTO. Declaration on Global Electronic Commerce. WT/MIN(98)/W/2. 1998 a.
- Yahoo Korea 경제용어사전. <http://kr.biz.yahoo.com>
- <http://www.bolerold.com/whois/ttclub.htm>.
- <http://www.ebizasialink.com>.
- <http://www.ecommerce.go.kr>.

<http://www.eimsingapore.com>.

<http://www.necxasia.com.sg>.

<http://www.silkroad21.com>.

<http://www.tradcard.com>.

<http://www.tradenet.gov>.

<http://www.usatrade.gov>.

Executive Summary

International Electronic Trade: Current Developments and It's Promotion Policy in Korea

Seong-Bong Lee · Sang-Ryul Shim · Joong-Shik Wang

As the internet is rapidly spreading out, an international trade method is being changed. Typically, conventional international trade has been formulated in a way that exporters and buyers meet face-to-face and connect ties with a letter of credits. To carry out a contract, many documents have had to be written out and delivered in banks, customs, shipping and insurance companies. But with the development of an internet, a global trade can be made via internet and other trade-related businesses can electronically be achieved. This new type of trade is called electronic international trade.

The electronic international trade is expected to dominate the global trade in the 21st century and thus is being introduced as a major policy assignment of each developed countries. It is especially important in Korea which has a high dependency rate on trade. Therefore, Korea needs to quickly adjust to this new method of trade and make use of it. This paper analyzes the newly-introduced electronic international trade and provides a number of policy suggestion that can make best use of.

This paper finally suggests that for the wide-use of the trade, the electronic international trade should actively be practiced in private sector, not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therefore should not be the initiative, but rather thoroughly be in an assisting position.

발간자료 목록 (1997~2001. 12)

■ 정책연구

- | | |
|---------------------------------------------------------------------------------------------------------------------------------------------------------------------------------------------------------------------------------------------------------------------------------------------------------------------------------------------------------------------------------------------------------------------------------------------------------------------------------------------------------------------------------------------------------------------------------------------------------------------------------------------------------------------------------------------------------------------------------------------------------------------------------------------------------------|----------------------------------------------------------------------------------------------------------------------------------------------------------------------------------------------------------------------------------------------------------------------------------------------------------------------------------------------------------------------------------------------------------------------------------------------------------------------------------------------------------------------------------------------------------------------------------------------------------------------------------------------------------------------------------------------------------------------------------------------------------------------------------------------------------------------------------------------------------------------------------------------------------------------------------------------------------------------------------------------------------|
| <p>97-01 美國 클린턴 제2기 行政府의 對外通商政策 / 王允鍾</p> <p>97-02 韓國의 海外直接投資 現況과 成果 / 王允鍾 編著</p> <p>97-03 外國人直接投資의 障礙要因과 促進方案 / 金準東</p> <p>97-04 中國의 住宅市場 現況과 進出與件 / 崔秀雄</p> <p>97-05 OECD 賂物防止協定에 따른 國內立法現況과 示唆點 / 金鍾範</p> <p>97-06 電子商去來의 國際的 論議動向과 對應課題 / 李鍾華 · 李晟鳳</p> <p>97-07 韓·美 通商摩擦의 推移와 對應方案 / 王允鍾 · 羅秀準</p> <p>97-08 中國經濟의 浮上과 韓國의 對應 / 李昌在 外</p> <p>97-09 東아시아 貿易 · 投資의 構造變化와 向後 課題 / 金南斗 外</p> <p>97-10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現況과 展望 / 趙明哲</p> <p>97-11 韓·러시아 經濟交流의 現況과 政策課題 / 鄭余泉</p> <p>97-12 美洲地域 經濟統合의 展望과 韓國의 對應課題 / 金元鎬 外</p> <p>97-13 WTO 主要論議 動向과 對應課題 / 金寬濬 外</p> <p>97-14 中國內 外資企業의 勞務管理 實態와 改善方案 / 趙顯坡</p> <p>98-01 IMF體制下의 韓國經濟(1997.12~1998.6): 綜合深層報告Ⅰ / 張亨壽 · 王允鍾</p> <p>98-02 中國 金融改革의 現況과 과제 / 李章揆 外</p> <p>98-03 國內企業 構造調整에 있어 國境間 M&A의 役割 / 王允鍾 · 金琮根</p> <p>98-04 EU 정보네트워크 모형의 APEC 지역 적용에</p> | <p>관한 탐색연구 / 權泰亨 外</p> <p>98-05 1997년 APEC 개별실행계획(IAPs)의 평가 / 成克濟</p> <p>98-06 1999년 세계경제전망 / 王允鍾 編</p> <p>98-07 부문별 조기무역자유화의 경제적 효과 / 柳在元 · 李弘求</p> <p>98-08 러시아 금융위기의 원인과 파급효과 / 李昌在 外</p> <p>98-09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투자인센티브 / 李晟鳳 · 李炯根</p> <p>98-10 外國人投資誘致政策: 國際的 成功事例와 示唆點: 投資自由地域 / 李晟鳳 外</p> <p>98-11 統一對備 국제협력과제: 國際金融機構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 張亨壽 · 李昌在 · 朴映坤</p> <p>98-12 臺灣企業의 國際化 戰略과 시사점 / 崔秀雄</p> <p>98-13 中國 國有企業 改革의 現況, 問題點 및 展開方向 / 徐錫興</p> <p>98-14 Technology Cooperation in the APEC: Case of the APII / Byung-il Choi · Eun Mee Kim</p> <p>98-15 IMF 긴급자금지원체제에 대한 평가와 國際金融體制 改編展望에 따른 우리의 대응 / 張亨壽 · 元容杰</p> <p>98-16 미국 FTA 정책의 전개와 시사점 / 鄭仁教</p> <p>98-17 최근 國際投資 紛爭事例의 研究 / 金寬濬 · 李性美</p> <p>98-18 通商關聯 電子商去來 論議動向과 示唆點 / 尹昌仁</p> <p>98-19 中·東區 및 CIS지역의 經濟統合 現況과 전망 / 鄭余泉 · 崔秉熙 · 韓貞澈</p> <p>98-20 북한의 외국인투자유치 정책과 투자환경 / 趙明哲 · 洪翼杓</p> <p>98-21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과 국제화 전망 / 全載旭 · 崔義炫</p> <p>99-01 1999~2000년 세계경제전망: 종합심층연구 / 曹琮和 編</p> <p>99-02 韓·브라질 21世紀 協力 비전과 課題 / 金元鎬 編</p> |
|---------------------------------------------------------------------------------------------------------------------------------------------------------------------------------------------------------------------------------------------------------------------------------------------------------------------------------------------------------------------------------------------------------------------------------------------------------------------------------------------------------------------------------------------------------------------------------------------------------------------------------------------------------------------------------------------------------------------------------------------------------------------------------------------------------------|----------------------------------------------------------------------------------------------------------------------------------------------------------------------------------------------------------------------------------------------------------------------------------------------------------------------------------------------------------------------------------------------------------------------------------------------------------------------------------------------------------------------------------------------------------------------------------------------------------------------------------------------------------------------------------------------------------------------------------------------------------------------------------------------------------------------------------------------------------------------------------------------------------------------------------------------------------------------------------------------------------|

1990년~현재까지의 모든 발간자료 목록은 연구원
Homepage (<http://www.kiep.go.kr>)에 수록되어 있음.

- 99-03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 관한 연구/金博洙·王允鍾·申東和·李炯根
- 99-04 주요 아시아 경쟁국 기업의 환위험 관리실태와 시사점/王允鍾·鄭在完·金琿根·李鴻培
- 99-05 2000년 세계경제전망/曹琮和 編
- 99-06 APEC 주요 회원국의 1998년도 개별실행계획(IAP)평가/安炯徒 編著
- 99-07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① 동북아 경제협력: 총괄편/李昌在
- 99-08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② 동북아 경제협력: 관세, 통상 등 지역경제협력/鄭仁教 外
- 99-09 중국의 WTO 가입이 동아시아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 /金益洙
- 99-10 東아시아 華人經濟와 우리의 華人資本 활용방안 /崔秀雄
- 99-11 IMF體制下的 韓國經濟 II(1998.7~1999.12): 綜合深層報告②/黃祥仁·王允鍾·李晟鳳
- 99-12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③ 동북아 경제협력: 투자협력/李晟鳳 外
- 99-13 동북아 경제협력연구 시리즈④ 동북아 경제협력: 금융협력/王允鍾 外
- 00-01 WTO 뉴라운드 規範分野의 논의동향과 韓國의 協商戰略/崔洛均·蔡旭·金準東·安有哲·尹美京·徐暢培
- 00-02 서비스산업의 開放效果: 業種間 波及效果를 중심으로/金準東·姜仁洙
- 00-03 東歐 經濟體制轉換의 평가와 北韓經濟에 대한 시사점/鄭余泉
- 00-04 WTO 뉴라운드 工產品協商의 시나리오별 實證分析和 韓國의 協商戰略/崔洛均·李明憲·朱文培
- 00-05 WTO 서비스협상의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金準東·李長榮·李漢煥·金龍奎·崔重熹·許琮·李漳源
- 00-06 WTO 뉴라운드 農業協商 影響分析 및 對應戰略/宋有哲·朴芝賢·李載玉·魚明根·任廷彬
- 00-07 韓·칠레 自由貿易協定の 推進背景, 經濟의 效果 및 政策的 示唆點/鄭仁教·李景姬
- 00-08 WTO 서비스규범 관련 論議動向 및 對應方案 /金準東·蔡旭·梁俊哲
- 00-09 體制轉換國의 經濟開發費用 조달/趙明哲·權栗·李哲元·金恩志
- 00-10 國際金融體制 改編의 주요쟁점연구/金世植·楊斗鏞·王允鍾·黃祥仁
- 00-11 WTO 新通商議題 영향분석과 대응/尹昌仁 外
- 00-12 中國·베트남의 初期 改革·開放政策과 北韓의 改革方向/趙明哲·洪翼杓
- 00-13 WTO 뉴라운드協商的 전망과 韓國의 協商力 제고 방안/蔡旭·崔洛均
- 00-14 선진국 주요 環境裝置가 韓國의 輸出競爭力에 미치는 影響과 對應方案 /尹昌仁·韓宅換·庾相喜
- 00-15 제3차 ASEM 頂上會議: 經濟協力分野의 성과와 발전전략/李鍾華
- 00-16 農産物 保護費用과 政策示唆點/宋有哲·朴芝賢
- 01-01 무역개방화와 제조업부문의 변화/南相烈
- 01-02 중국 WTO 가입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 01-03 은행서비스 시장의 개방현황 및 외국은행 진입에 따른 효과분석/黃祥仁·金寅培·辛仁錫
- 01-04 韓·日 FTA의 경제적효과와 정책시사점 /鄭仁教
-
- 조사분석
-
- 97-01 韓國企業의 對中 投資 實態 및 經營成果 分析 /朴相守
- 97-02 베트남의 經濟改革 推進現況 및 經濟展望/鄭在完
- 97-03 韓國의 對베트남 投資 및 ODA 推進方向/鄭在完
- 97-04 西方의 中央아시아 石油·가스部門 進出現況/李哲元
- 97-05 러시아의 石油·가스 輸送體系/徐承源
- 97-06 메콩江流域 開發現況과 韓國의 參與方案/鄭在完·權耿德
- 97-07 CIS 經濟統合의 推進現況과 展望/李聖焄·崔秉熙
- 97-08 인도네시아의 金融産業: 危機의 背景과 展望 /金完仲
- 97-09 中國의 에너지産業 現況과 韓國에 대한 示唆點/崔義炫
- 97-10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日本의 酒稅에 관한 研究/蔡旭
- 97-11 WTO紛爭解決事例 研究: 美國의 「취발유」에 대한

基準」에 관한 紛爭 / 李鎭生

97-12 베트남 國有企業改革의 現況과 課題 / 權 栗

97-13 中國 石油化學産業의 現況과 展望 / 洪翼杓

97-14 中國 株式市場의 現況과 展望 / 金琮根

97-15 中國의 經濟改革과 中央·地方關係 / 朴月羅

97-16 우크라이나의 經濟改革과 外國人投資 制度 / 李炯根

98-01 80년대 이후 日本 通商政策 基調의 변화 / 羅成燮

98-02 金融危機 이후 輸出構造變化와 향후 輸出與件 전망 / 鄭仁教·李昌在 編著

98-03 한국과 멕시코의 외환위기의 시사점 및 구조조정 과제 / 趙潤濟·金鍾燮

98-04 헤지펀드 運用實態와 國別 換投機 事例分析 / 李永雨

98-05 APEC 역내 과학기술자 교류 저해요인 조사연구 / 鄭聖哲·李明振

98-06 APEC의 개방적 지역주의와 WTO의 조화에 관한 연구 / 朴成勳

98-07 러시아의 APEC 가입 배경과 對APEC 정책 / 李載裕·李載榮

98-08 APEC 주요회의의 회원국별 이행에 관한 연구 / 朴泰鎭·文字植·白珍鉉

98-09 APEC 비관세 장벽의 현황 / 孫正植·韓弘烈

98-10 APEC 지방정부의 관광협력 활성화방안 / 朴氣弘

98-11 유로貨 출범의 파급효과 및 對EU통상환경의 변화 / 李鍾華 外

98-12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적 운영현황과 과제 / 김애리

98-13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인도산 직조 모직셔츠 및 블라우스 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분쟁 / 蔡 旭

98-14 WTO 분쟁해결 사례 연구: 미국의 「면직 및 수제내 의에 대한 수입규제」에 관한 분쟁 / 蔡 旭·徐暢培

98-15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 / 金裕燦·李晟鳳

99-01 OECD연구시리즈2 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의 제정과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李晟鳳·李炯根

99-02 주요 산업별 해외 M&A사례와 국내기업의 대응방안 / 金琮根

00-01 透明性 提高를 위한 國際基準 및 規範의 開發과

遵守現況 / 朴映坤·金于珍·羅秀樺

00-02 주요 이슈를 韓·美 通商懸案 政策課題 / 梁俊哲·金鴻律

00-03 NAFTA의 經濟의 效果分析: 출범전 展望과 實行 效果 比較를 중심으로 / 金元鎭·姜文盛·羅秀樺·金眞栢

00-05 國際協力體 설립을 통한 北韓開發 지원방안 / 張亨壽·朴映坤

01-01 싱가포르의 知識基盤經濟 이행전략과 시사점 / 鄭在完

01-02 아프리카 市場特性 分析 및 韓國의 輸出擴大 方案 / 朴英鎭

01-03 WTO 무역원활화 논의와 전자무역: e-Trade를 중심으로 / 孫讚鉉·尹眞那

■ Policy Analyses

00-01 Regional Arrangements to Borrow: A Scheme for Preventing Future Asian Liquidity Crisis / Tae-Joon Kim · Jai-Won Ryou · Yunjong Wang

00-02 Foreign Exchange Marke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Chae-Shick Chung · Sangyoung Joo · Doo Yong Yang

01-01 Capital Account Liberalization and Macroeconomic Performance: The Case of Korea / Soyoung Kim · Sunghyun H. Kim · Yunjong Wang

■ Policy Papers

97-01 Impact of Trade Liberalization under Alternative Scenarios / Inkyo Cheong

97-02 Regional Integration and Liberalization in the Asia-Pacific / Honggee Lee · Jai-Won Ryou

97-03 Northeast Asia's Transboundary Pollution Problems: A pragmatic Approach / Sang-Don Lee · Taek-Whan Han

98-01 Korea's Economic Reform Measures under the IMF Program

/Chan-Hyun Sohn · Junsok Yang eds.

98-02 Adjustment Reforms in Korea since the Financial Crisis(December 1997 - June 1998)

/Yunjong Wang · Hyoungsoo Zang

■ 정책자료/Policy References

- 00-01 南北經協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방향/趙明哲
00-02 제3차 ASEM 정상회의와 한국의 전략
/李鍾華 · 李東輝 · 趙泓植
01-01 New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and Korean Perspectives/Tae-jun Kim · Doo Yong Yang
01-01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경제적 효과분석/孫讚鉉 編
01-02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주요산업별 효과분석
/孫讚鉉 · 尹眞那
01-03 한·일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제적 효과와 바람직한 정책방향/孫讚鉉 編
01-04 미국 부시행정부의 경제정책과 2001년 경제동향
/姜文盛 · 羅秀堦
01-05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李晟鳳 · 沈相烈 · 王重植

■ 행사결과보고/Conference Proceedings

- 97-01 International Economic Implications of Korean Unification/Young-Rok Cheong ed.
97-02 제5차APEC頂上會議의 意義와 對策－
APEC연구컨소시엄 라운드테이블/安炯徒 編
97-03 21세기 韓·中經濟의 비전과 同業者關係의 모색－
韓 · 中修交 53주년 세미나/鄭永錄 編
97-04 러시아의 外國人投資環境과 韓 · 러關係
/李昌在 · 金秉熙 編
97-05 Europe-East Asia Economic Relations: Current Status and Prospects/Bak-Soo Kim ed.
98-01 新政府의 輸出支援戰略과 通商政策課題:
GATT/WTO 체제 50주년기념

정책세미나/孫讚鉉 編

- 98-02 Korea and Central America: Toward a New Partnership in Changing Environments/Won-Ho Kim ed.
98-03 Korean Economic Restructuring: Evaluation and Prospects/Mikyung Yun ed.
98-04 21세기를 향한 韓 · 中 · 日 經濟協力의 새로운 모색/李昌在 編
99-01 Exchange Rate Regimes in Emerging Market Economies/Yung Chul Park · Yunjong Wang
00-01 21세기 한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방안/王允鍾 編
00-02 Shared Prosperity and Harmony
/Kyung Tae Lee ed.
00-03 The Seoul 2000 Summit: The Way Ahead for the Asia-Europe Partnership/Chong-wha Lee ed.
00-04 Reforming the International Financial Architecture: Emerging Market Perspectives/Ii SaKong · Yunjong Wang
00-05 Korea in the OECD Perspective: Shaping up for Globalization
01-01 Regional Financial Arrangements in East Asia: Issues and Prospects/Yoon Hyung Kim · Yunjong Wang

■ APEC Study Series

- 00-01 An Analysis of CO₂ Emission Structures of the APEC Economies: Implications for Mitigation Policies and Regional Cooperation/Kihoon Lee · Wankeun Oh
00-02 Digital Divide in the APEC: Myth, Realities and A Way Forward/Byung-il Choi
00-03 A Model Development for Measuring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Tourism Industry in the Asia-Pacific Region/Chulwon Kim
00-04 Investment Environment after the Financial Crises in the Asia-Pacific Region/Taeho Bark and Hwy-Chang Moon
00-05 Measures for Promoting Knowledge-based

- Economies in the APEC Region / Yoo Soo Hong
- 00-06 Issues of the WTO New Round and APEC's Role / Sung-Hoon Park
- 00-07 APEC Trade Liberalization After EVSL / Sang-yirl Nam

■ Discussion Papers

- 00-01 Review of APEC's IAPs: Competition Policy and Deregulation *Focussing on Non-OECD Economies of APEC* / Hyungdo Ahn · Junsok Yang · Mikyung Yun
- 00-02 Reform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and Institutions in Light of the Asian Financial Crisis / Yung Chul Park · Yunjong Wang
- 01-01 Korea's FTA (Free Trade Agreement) Policy: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 Chan-Hyun Sohn · Jinna Yoon

■ Working Papers

- 97-01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Liberalization: The Case of Korea / June-Dong Kim
- 97-02 APEC's Eco-Tech: Prospects and Issues / Jaebong Ro · Hyungdo Ahn
- 97-03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OECD 논의와 우리경제에의 시사점 / 王允鍾 · 李晟鳳
- 97-04 Economic Evaluation of Three-Stage Approach to APEC's Bogor Goal of Trade Liberalization / Inkyo Cheong
- 97-05 EU의 企業課稅와 韓國企業의 直接投資戰略 / 李晟鳳
- 97-06 In Search of an Effective Role for ASEM: Combating International Corruption / Jong-Bum Kim
- 97-07 Economic Impact of Foreign Debt in Korea / Sang-In Hwang
- 97-08 Implications of APEC Trade Liberalization on the OECD Countries: An Empirical Analysis Based

- on a CGE Model / Seung-Hee Han · Inkyo Cheong
- 97-09 IMF 救濟金融事例 研究: 멕시코, 태국, 인도네시아의 事例를 중심으로 / 金元鎬 外
- 97-10 韓 · EU 主要通商懸案과 對應方案 / 李鍾華
- 97-11 러시아 外國人投資 現況 및 制度的 與件 / 鄭鎔株
- 98-01 韓 · 日 主要通商懸案과 對應課題 / 程 勳 · 李鴻培
- 98-02 Bankruptcy Procedure in Korea: A perspective / Mikyung Yun
- 98-03 美國의 兩者間 投資協定: 韓 · 美 投資協定の 意義와 展望 / 金寬澈
- 98-04 The Role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ductivity Effects and Implications for the Currency Crisis / June-Dong Kim · Sang-In Hwang
- 98-05 Korea'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1948-1998 Why the Era of Active Policy is Over / Chan-Hyun Sohn etc.
- 98-06 ASEM Investment Promotion Action Plan (IPAP) Revisited: Establishing the Groundwork for Regional Investment Initiative / Chong Wha LEE
- 98-07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①: 英國 / 申東和
- 98-08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②: 인도네시아 / 金完仲
- 98-09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③: 美國 / 朴英鎬
- 98-10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④: 中國 / 金琮根
- 98-11 외환위기 이후 한국해외현지법인의 구조조정실태와 애로사항⑤: 泰國 / 權耿德
- 98-12 APEC's Ecotech: Linking ODA and TILF / Hyungdo Ahn · Hong-Yul Han
- 98-13 경제난 극복의 지름길: 외국인투자 / 金準東 外
- 98-14 最近 國際金融環境變化와 國際金融市場動向 / 王允鍾 外
- 98-15 Technology-Related FDI Climate in Korea / Yoo Soo Hong
- 98-16 構造調整과 國家競爭力 / 洪裕洙
- 98-17 WTO 무역원활화 논의현황과 정책과제 - 통관절차

- 및 상품의 국경이동을 중심으로 / 孫讚鉉 · 任曉成
- 98-18 주요국의 투자자관계 관리사례 / 申東和
- 98-19 公企業 매각방식의 주요 유형: 해외매각을 중심으로 / 尹美京 · 朴英鎬
- 99-01 改革推進 外國事例와 示唆點 / 金元鎬 外
- 99-02 WTO 뉴라운드의 전망과 대책 / 蔡 旭 · 徐錫培
- 99-03 Korea-U.S. FTA: Prospects and Analysis / Inkyo Cheong · Yunjong Wang
- 99-04 Korea's FTA Policy Consistent with APEC Goals / Inkyo Cheong
- 99-05 OECD연구시리즈3 OECD 부패방지협약과 후속 이행조치에 관한 논의와 평가 / 張權鎬
- 99-06 Restructuring and the Role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 Korean View / Yunjong Wang
- 99-07 The Present and Future Prospects of the North Korean Economy / Myung-Chul Cho · Hyoungsoo Zang
- 99-08 APEC After 10 years: Is APEC Sustainable? / Hyungdo Ahn
- 99-09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Regime and Some Evidences of Spillover Effects in Korea / June-Dong Kim
- 99-10 OECD연구시리즈1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에 관한 OECD의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姜聲鎭
- 99-11 Distressed Corporate Debts in Korea / Jae-Jung Kwon · Joo-Ha Nam
- 99-12 Capital Inflows and Monetary Policy in Asia before the Financial Crisis / Sung-Yeung Kwack
- 99-13 Korean Implementation of the OECD Bribery Convention: Implications for Global Efforts to Fight Corruption / Jong-Bum Kim
- 99-14 The Asian Financial Crisis and the Need for Regional Financial Cooperation / Yunjong Wang
- 99-15 Developing an ASEM Position toward the New WTO Round / Chong Wha LEE
- 99-16 OECD연구시리즈4 OECD/DAC의 공적개발원조 논의와 동향 / 權 粟
- 99-17 WEF 국가경쟁력 보고서 분석 / 王允鍾 · 申東和 · 李炯根
- 99-18 Political and Security Cooperation, Membership Enlargement and the Global Information Society: Agenda Solutions for ASEM III / Simonetta Verdi
- 99-19 An Assessment of the APEC's Progress toward the Bogor Goals: A Political Economy Approach to Tariff Reductions / Honggue Lee
- 99-20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WTO and APEC: Trade Policy Options for APEC in the 21st Century / Sung-Hoon Park
- 99-21 Competition Principles and Policy in the APEC: How to Proceed and Link with WTO / Byung-il Choi
- 99-22 The Relations between Government R&D and Private R&D Expenditure in the APEC Economies: A Time Series Analysis / Sun G. Kim · Wankeun Oh
- 99-23 Ecotech and FEEEP in APEC / Ki-Kwan Yoon
- 99-24 OECD연구시리즈5 무역과 경쟁정책에 관한 OECD논의와 한국경제에 대한 시사점 / 尹美京 · 金琮根 · 羅榮淑
- 99-25 Economic Integration in Northeast Asia: Searching for a Feasible Approach / Inkyo Cheong
- 99-26 The Mekong River Basin Development: The Realities and Prospects of Korea's Participation / Jae-Wan Cheong
- 99-27 OECD연구시리즈6 OECD 규제개혁 극별검토: 미국, 네덜란드, 일본, 멕시코 / 梁俊哲 · 金鴻律
- 99-28 Assessment of Korea's Individual Action Plans of APEC / Hyungdo Ahn
- 99-29 빈곤국 외채탕감 논의와 우리의 대응 / 張亨壽 · 朴映坤
- 99-30 How to Sequence Capital Market Liberalization: Lessons from the Korean Experience / Inseok Shin · Yunjong Wang
- 99-31 Searching for an Economic Agenda for the 3rd ASEM Summit: Two Scenarios / Chong Wha LEE
- 99-32 The Structural Transformation of the Japanese Enterprise Groups After the Economic Recession of the 1990s: The Impact of Financial Restructuring on the Keiretsu Structure / Yongsok Choi
- 99-33 Exchange Rate Policies in Korea: Has Exchange

- Rate Volatility Increased After the Crisis? / Yung Chul Park · Chae-Shick Chung · Yunjong Wang
- 99-34 Total Factor Productivity Growth in Korean Industry and Its Relationship with Export Growth / Sang-yirl Nam
- 00-01 Issues in Korean Trade 1999: Trends, Disputes & Trade Policy / Junsok Yang · Hong-Youl Kim
- 00-02 Competition and Complementarity in Northeast Asian Trade: Korea's Perspective / Sang-yirl Nam
- 00-03 Currency Conversion in the Anti-dumping Agreement / Jong Bum Kim
- 00-04 East Asian-Latin American Economic Relations: A Korean Perspective After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 Won-Ho Kim
- 00-05 The Effects of NAFTA on Mexico's Economy and Politics / Won-Ho Kim
- 00-06 Corporate Leverage, Bankruptcy, and Output Adjustment in Post-Crisis East Asia / Se-Jik Kim · Mark R. Stone
- 00-07 Patent Protection and Strategic Trade Policy / Moonsung Kang
- 00-08 Appropriate Exchange Rate Regime in Developing Countries: Case of Korea / Chae-Shick Chung · Doo Yong Yang
- 00-09 Patent Infringement and Strategic Trade Policies: R&D and Export Subsidies / Moonsung Kang
- 00-10 Liberalization of Trade in Services and Productivity Growth in Korea / Jong-Il Kim · June-Dong Kim
- 00-11 Trade Policy Mix under the WTO: Protection of TRIPS and R&D Subsidies / Moonsung Kang
- 00-12 Korea's Overseas Direct Investment: Evaluation of Performances and Future Challenges / Seong-Bong Lee
- 00-13 The Liberalization of Banking Sector in Korea: Impact on the Korean Economy / Sang In Hwang · In-Sok Shin
- 01-01 Does the Gravity Model Fit Korea's Trade Patterns? *Implications for Korea's FTA Policy and North-South Korean Trade* / Chan-Hyun Sohn

and Jinna Yoon

- 01-02 Impact of China's Accession to the WTO and Policy Implications for Asia-Pacific Developing Economies / Wook Chae and Hongyul Han
- 01-03 Is APEC Moving Towards the Bogor Goal? / Kyung Tae Lee and Inkyo Cheong
- 01-04 Impact of FDI on Competition: The Korean Experience / Mikyung Yun and Sungmi Lee
- 01-05 Aggregate Shock, Capital Market Opening, and Optimal Bailout / Se-Jik Kim · Ivailo Izvorski

■ OECD 연구시리즈

- 00-01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규제개혁 / 梁俊哲 · 金鴻律
- 00-02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농업 / 宋有哲 · 朴芝賢
- 00-03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금융 · 자본 시장 / 黃祥仁 · 李炯根
- 00-04 OECD의 권고이행평가 및 향후과제: 환경 / 尹昌仁
- 01-01 OECD 규제개혁 연구: 규제순응과 효율성 / 梁俊哲 · 金鴻律

■ 경제개방바로알기시리즈

- ① 시장개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최낙균
- ② WTO 뉴라운드 출범은 왜 필요한가? / 최낙균
- ③ WTO 서비스협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 김준동 · 강준구
- ④ 이제는 FTA, 자유무역협정의 시대다 / 정인교
- ⑤ 농산물 시장개방: 그 득과 실 / 송유철
- ⑥ 외국인투자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이성봉 · 김관호 · 원신희
- ⑦ 투자협정 바로알기 / 김관호 · 이성봉

■ 지역리포트

- 00-01 금융위기 이후 선진기업의 아시아 진출현황과 시

- 사점 / 朴英鎬
- 01-01 일본 구조개혁의 현황과 전망: 재정개혁을 중심으로 / 金恩志
- 01-02 핀란드의 정보사회화 전략과 정보통신산업 발전 요인 분석 / 朴映坤
- 01-03 유럽경제통합동맹(EMU)의 발전과정과 확대전망 / 鄭厚榮
- 01-04 아일랜드의 정보통신산업 발전과정과 정부의 지원정책 / 朴映坤

■ 지역연구회시리즈

- 00-01 블라디미르 푸틴의 시대: 2000년 러시아 대선분석 및 향후 정세전망 / 鄭銀淑
- 00-02 동북아 경제협력 구도에서 韓半島의 통합적 발전 방향 / 吳勇錫
- 00-03 AFTA-CER간 연계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 / 元容杰
- 00-04 美國經濟의 最近好況에 있어서 IT와 金融化의 役割 / 李榮洙 · 徐煥周
- 00-05 日 · 北 經濟協力の 展開構圖와 韓國의 對應方案 / 申志鎬
- 00-06 러시아의 체제전환과 자본주의의 발전에 관한 연구 / 朴濟勳
- 00-07 知識基盤經濟의 구축과 情報化 촉진을 위한 EU의 政策方向 / 蔡熙律

- 00-08 멕시코 금융개혁 추진현황과 교훈 / 張善德
- 00-09 對日청구권 자금의 활용사례 연구 / 金正湜
- 00-10 러시아 금융산업집단의 정치경제적 역할: 현황과 전망 / 嚴久鎬
- 00-11 중국의 WTO 가입 이후 산업별 개방 계획과 그 영향 / 楊平燮
- 00-12 印度 經濟改革 10年の 評價와 向後課題 / 金讚沆
- 00-13 東北亞 地域 海洋都市間 經濟協力모델 構想 / 金昌男 · 千寅鎬
- 00-14 대만의 WTO 가입 전망과 시사점 / 高在模 · 全載旭
- 00-15 일본기업의 對아프리카 투자전략과 시사점 / 辛源龍
- 00-16 남미공동시장(MERCOSUR)의 경제적 성과분석과 한국의 진출방안 / 尹玄德
- 00-17 경제전환기 중 · 동구 노동정책에 관한 비교 연구 / 李殷九
- 01-01 남북통일에 대비한 정보통신정책 협력방안 / 金泳世
- 01-02 외환위기 이후 동남아 화인기업의 경영전략 변화 / 朴繁洵
- 01-03 1990년대 미국의 정보산업 및 전자상거래 발전전략에 대한 연구 / 李忠烈
- 01-04 일본경제의 붕괴와 잃어버린 10년 / 姜應善
- 01-05 미국 에너지 위기의 원인과 전망 / 鄭基虎 · 李滿基
- 01-06 豆滿江 開發 10年の 評價와 展望 / 沈義燮 · 李光助

李晟鳳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1989)
서울대학교 경영학 석사(1991)
독일 만하임대학교 경영학 박사(1995)
대의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現, E-mail: sblee@kiep.go.kr)

著書 및 論文

『OECD의 전자상거래 관련 과세제도에 대한 논의와 시사점』(공저, 1998) 외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교역증진을 위한 환경분석 및 추진방안』(공저, 2000)

沈相烈

고려대 영어영문학과 학사(1981)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제경제학과 석사(1987)
한양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박사(2000)
광운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現, E-mail: srshim@daisy.gwu.ac.kr)

著書 및 論文

『무역자동화와 EDI』(공저, 1998)
『MBN 전자상거래 관리사』(공저, 2001) 외

王重植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졸업(1994)
연세대학교 경영학 석사(1996)
Valtech 컨설팅 코리아 시니어컨설턴트(現, E-mail: joongshik.wang@valtech.co.kr)

著書 및 論文

『전자상거래를 통한 국제교역증진을 위한 환경분석 및 추진방안』(공저, 2000) 외

정책자료 01-05

전자무역의 최근 동향과 활성화 방안

2001년 12월 20일 인쇄

2001년 12월 30일 발행

발행인 **李景台**

對外經濟政策研究院

발행처 137-747 서울특별시 서초구 염곡동 300-4

전화: 3460-1178 FAX: 3460-1144

인쇄 **오름시스템(주)** 전화: 2273-7011 대표 이호열

등록 1990년 11월 7일 제16-375호

【本書 內容의 無斷 轉載·複製를 금함】

ISBN 89-322-2073-5 94320

값 7,000원

89-322-2068-9(세트)

KIEP 발간자료회원제 안내

- 본 연구원에서는 본원의 연구성과에 관심있는 專門家, 企業 및 一般에 보다 개방적이고 효율적으로 연구 내용을 전달하기 위하여 「발간자료회원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발간자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본 연구원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고서 및 세미나자료 등을 대폭 할인된 가격으로 신속하게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 종류 및 연회비

회원종류	배포자료	연간회비		
		기관회원	개인회원	연구자회원*
S	외부배포 발간물 일체	30만원	20만원	10만원
A	(반년간) 대외경제연구	1만 2천원		1만원
B	(월간) KIEP세계경제	5만원		2만 5천원
C	(주간) KIEP 주간세계경제분석	5만원		2만 5천원

* 연구자 회원: 교수, 연구원, 학생, 전문가풀 회원

■ 가입방법

우편 또는 FAX 이용하여 가입신청서 송부 (수시접수)
 137-747 서초구 염곡동 30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보자료실 편집출판팀
 연회비 납부 문의전화: 02) 3460-1179 FAX: 02) 3460-1144
 E-mail: sklee@kiep.go.kr

■ 회원특전 및 유효기간

- S기관회원의 특전: 본 연구원 해외사무소(美 KEI) 발간자료, 週報(인쇄물), 전문가풀 토의자료등 제공
- 자료가 출판되는 즉시 우편으로 회원에게 보급됩니다.
- 모든 회원은 회원가입기간 동안 가격인상에 관계없이 신청하신 종류의 자료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연구원이 주최하는 국제세미나 및 정책토론회에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연회원기간은 加入月로부터 다음해 加入月까지입니다.

KIEP 발간자료회원제 가입신청서

기관명 (성명)	(한글)	(한문)
	(영문: 약호 포함)	
대표자		
발간물 수령주소	우편번호	
담당자 연락처	전화	FAX
회원소개 (간략히)		
사업자 등록번호	종목	

회원분류 (해당난에 √ 표시를 하여 주십시오)

기관회원 <input type="checkbox"/>	S 발간물일체	A 반년간지	B 월간지	C 주보
개인회원 <input type="checkbox"/>				
연구자회원 <input type="checkbox"/>				

* 회원번호

* 갱신통보사항

(*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특기사항